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학특강

봄의 산사에 피는 人文學

2023. 3. 25. ~ 4. 29. 매주 토요일 10:30~12:00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www. banyaresearch.org](http://www.banyaresearch.org)

목 차

-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히 프롬 - 에리히 프롬과 불교 - 박찬국 || 05
- 20세기 중국을 빛낸 자매 송경령(宋慶齡)과 송미령(宋美齡) 이양자 || 09
- 있음과 없음, 그리고 황홀(恍惚) 이성희 || 17
- 『韓非子』, 군왕의 길을 밝히다 김영철 || 21
- 그리스 신화 속의 사랑 이야기 김영필 || 29
- 일본의 종교 성해준 || 35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히 프롬

- 에리히 프롬과 불교 -

박찬국(서울대 철학과 교수)

1. 프롬과 불교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와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문명(文名)을 떨쳤던 철학자다.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프롬만큼 대중적으로 널리 읽혔던 사상가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 에리히 프롬이란 사상가의 이름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정작 에리히 프롬이 불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을 뿐 아니라 불교의 명상법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쇼펜하우어와 같은 사상가를 제외하고는 서양의 철학자들 대부분이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사상을 경시하거나 그것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불교에 대한 프롬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높은 평가는 서양철학의 역사에서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프롬은 종교를 권위주의적 종교와 인본주의적 종교로 나누면서 인본주의적 종교의 가장 훌륭한 전형으로 불교를 뽑았다. 권위주의적 종교는 특정한 교리나 예식체계 등을 종교의 핵심으로 보면서 신자들에게 특정한 교리를 맹목적으로 믿거나 특정한 예식체계를 무조건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종교다. 권위주의적 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나 예식체계만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독선에 사로잡히면서 다른 종교들을 이단시하고 배척하게 된다.

이에 반해 인본주의적 종교는 종교의 핵심을 이성과 사랑과 같이 인간에게 원래 존재하는 훌륭한 잠재능력을 온전히 개화시키는 데서 찾고 있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종교의 이념에 충실할수록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비롯한 지혜를 더욱 성숙시키게 되며 모든 생명과 사물에 대해서 공감과 애정을 갖게 된다.

프롬은 불교를 인류 역사상 나타난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가장 이상파괴적인 종교일 뿐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종교라고 보았다. 불교는 한편으로 자신의 교리나 예식체계를 무조건적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만약에 깨달음을 방해한다면 언제든지 폐기되어도 좋다고 본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이상파괴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불교는 종교의 목표를 오직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미 존재하는 불성을 온전히 개화한다는 데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해 프롬은 기독교에는 권위주의적 성격과 인본주의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예수가 하느님의 독생자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같은 교리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종교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는 하느님을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느님으로 보면서 하느님에 다가가는 참된 길을 다른 인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불교에 대한 프롬의 높은 평가는 선불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선(禪)은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가장 세련된 반(反)이데올로기적이고 이성적인 체계이며, 그것은 ‘비종교적’ 종교(nonreligious’ religion)를 발전시키고 있다. 선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열렬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서양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비종교적’ 종교라는 것은 선불교가 기독교나 이슬람과 같이 인격신이나 특정한 교리와 예식체계를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종교라는 것을 의미한다. 프롬은 불교야말로 철저하게 이성에 입각한 종교이며 어떠한 비합리적인 신비화나 계시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종교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프롬이 불교에 접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20세 때였다. 이 당시 프롬은 게오르크 그림(Georg Grimm)의 『부처의 가르침. 이성의 종교』(Die Lehre des Buddhismus)와 『불교학』(Die Wissenschaft des Buddhismus)을 통해서 불교를 알고 난 후 불교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프롬은 원래 정통파 유태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탈무드 학자가 되려고 했었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정통적인 유태교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게 된다. 프롬이 이렇게 유태교에서 벗어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그 중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불교와의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에 대한 프롬의 관심과 애정은 단순히 이론적인 데 그치지 않았다. 프롬은 매일 아침 10시에서 11시까지 명상을 했다. 프롬은 1975년에 자신의 75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병으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전혀 피로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두 시간에 걸쳐서 발표를 했다. 사람들이 프롬에게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자신이 그날 아침 2시간 동안 호흡과 명상을 했다고 대답했다.

2. 소유지향적 삶과 존재지향적인 삶

프롬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냐 존재냐』는 불교사상이 프롬의 사상에 미친 깊은 영향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현대사회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소유지향적인 삶과 사회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보면서 존재지향적인 삶과 사회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한 책이다. 소유지향적인 삶이란 현대인들을 규정하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서 삶의 의미를 보다 많은 물질의 소유와 쾌락의 향유에서 찾는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사람들 상호 간의 분열과 인간과 자연의 분열 그리고 인간의 자기분열을 야기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물질과 쾌락을 둘러싼 사람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야기하며, 자연을 한낱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서 취급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야기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은 인간을 물질과 쾌락에 대한 무한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지만 정작 이렇게 무한한 욕망은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자신에 대한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분열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에 의해 지배될수록 인간은 물질과 쾌락을 즐기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쾌락에 예속되는 노예가 된다. 이렇게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근본적인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불만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공허감과 우울증 그리고 깊은 권태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인들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다.

프롬은 이러한 공허함과 우울증 그리고 깊은 권태감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자들의 성스러움을 경험하면서 그것들과 교감을 나누는 삶이다. 이러한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인 지혜와 사랑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성장을 경험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의 방식이다.

프롬이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입각한 삶이며,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탐욕과 분노 그리고 무지라는 삼독(三毒)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취할 수 있다.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에 빠져 있는 인간은 물질과 쾌락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한편, 그러한 탐욕은 항상 원하는 대로 즉시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에 불만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 또한 그는 물질과 쾌락이라는 덧없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무지에 사로잡혀 있다.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불교를 자주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가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프롬이 존재지향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로서 거론하고 있는 것들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한 과제들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들이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는 한 서로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며 자기 자신의 현 상태에도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완전하게 '존재'하기 위해,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충만함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소유욕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이렇게 소유욕에서 벗어날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나 적의에서 벗어나서 그들과 진정한 연대를 맺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만 인간은 내적으로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축하고 착취하는 데서가 아니라 서로 나누어 갖는 데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둘째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정교한 기계와 상품 그리고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자신이 모든 생명체와 하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파괴한다는 목표를 포기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공생하도록 힘쓴다.

셋째로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한다. '지금 여기에' 펼쳐 있는 세계와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인간과 사물에서 경이를 느끼면서 그것들에 자신을 온전히 열고 그것들과 교감을 나눈다.

넷째로 인간의 사악함과 파괴성은 인간이 자신의 인격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와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다섯째로 자기 이외의 어떠한 인간이나 사물도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

여섯째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지만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지도 않는 지혜로운 인간이 된다. 자기 자신과 타인들의 장점과 약점을 냉철하게 통찰할 줄 알아야 한다.

일곱째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을 한다. 그러나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야심은 없다. 그와 같은 야심도 탐욕과 소유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는 운명에 맡기고 성장하고 있는 삶의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3. 맺으면서 - 프롬과 불교의 대화

프롬은 철학자일 뿐 아니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창조적으로 변용 계승하면서 정신분석학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한 정신분석학자였고 정신치료를 직접 수행했던 정신분석의(精神分析醫)이기도 했다.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현대인들과 현대사회의 병적인 성격을 분석하는 한편, 독서와 사랑, 대화, 권위, 종교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유양식과 존재양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프롬의 이러한 분석은 불교의 통찰을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의 가르침을 크게 보완할 수 있다.

소유양식보다는 존재양식을 주창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던 프롬은 그 자신 진정으로 소유욕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 독일에서 수백만 부가 팔렸던 『사랑의 기술』의 인세로 프롬은 보잘것없는 액수의 돈밖에 받지 못했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프롬은 오전 시간을 연구와 사색을 위한 신성한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오전에는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일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철학마저도 하나의 지적인 분석 작업으로 전락해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지행(知行)이 합일된 사람은 찾아보기 매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프롬은 언행이 일치했던 극소수의 사상가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강사소개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을 비롯한 실존철학이 주요 연구 분야이며 최근에는 불교와 서양철학 비교를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연구』, 『니체와 불교』, 『에리히 프롬과 불교』, 『내재적 목적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니체와 하이데거』 등이 있고, 주요 역서로는 『니체 I, II』, 『아침놀』, 『비극의 탄생』, 『안티크리스트』, 『우상의 황혼』,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이 사람을 보라』, 『상징형식의 철학 I, II, III』 등 다수가 있다.

20세기 중국을 빛낸 자매 송경령(宋慶齡)과 송미령(宋美齡)

이양자(동의대 명예교수)

1. 송경령(1893~1981)의 일대기

중국 명예주석. 중앙인민정부 부주석. 전국부녀연합회 명예주석. 중소우호협회 회장, 인민구제총회 주석.
세례명 ; Rosamonde. 대학시절 애칭 ; Suzie.

1) 유년시절~결혼까지 ; 1893~1915년(1歲~22歲)

父 ; 송가수. 母 ; 예계진 ⇒ 애령, 경령, 자문, 미령, 자량, 자안, 6남매.
상해 출생. 맥타이어 스쿨 졸업. 16세 때 미국 유학.
미국 웨슬리안 칼리지 졸업. 1913년 귀국. 1915년 손문과 결혼.

2) 결혼생활 10년 ; 1915~1925년 (22歲~32歲)

퍼스트레이디 시절. 애정의 이상과 혁명의 이상의 결합.
손문의 비서, 조수, 동지, 통역관, 참모, 아내, 조연자 역할.
1925. 3. 12. 손문 간암으로 서거.

3) 손문 사후 독립된 정치가로 성장 ; 1925~1927년(32歲~34歲)

5·30 운동 참가. 무한정부 건립 참여. 장개석의 4·12 반공쿠데타에 분개.
항의 성명 ; “손문의 혁명 원칙과 정책의 위반에 항의하는 성명”
모스크바 망명. 손문의 혁명원칙(신3민주의3대 정책)수호의 강한 의지.

4) 망명시절 ; 1927~1931년(34歲~38歲)

모스크바 망명 → 독일 체류. 춥고 암울한 망명생활. 가족과의 결별.
브뤼셀 국제반제동맹회의 참석(명예회장).
등연달 등과 사회 혁명에 대한 공부. 손문 이장식 참석(1929년).

5) 만주사변 이후 장개석 치하에서의 활동; 1931~1937년(38歲~44歲)

어머니 별세 귀국. 만주사변. 장개석의 부저항 정책. 安內攘外(안내양외) 정책.
등연달 살해됨, 격분. <중국민권보장동맹> 결성. <국민어모자구회> 결성,
<중국민족무장자위위원회> <전국각계구국연합회> 결성.

6) 항일기간 중의 활약(항일) ; 1937~1945年(44歲 ~52歲)

국공관계개선 노력. 서안사변 후 노구교사건 - 중일전면전쟁 - 국공합작.
구국채권모집운동.<보위중국동맹>주석,<중국공업합작사운동>추진위원.
세자매 단결, 20여개 여성단체 규합 항일구망운동.

7) 국공내전 기간 ; 1945~1949年(52歲~56歲)

연합정부 성립촉구.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기간 → 중공에 합류.
《중국복리기금회》재조직. 여성·어린이 구제사업, 복지사업에 헌신.

8) 인민공화국성립 ; 1949~1965年(56歲~72歲)

부주석. 정치협상회의 위원. 중화전국민주부녀연합회 명예주석.
중국인민구제총회 주석. 국제평화상 수상. <국제평화부녀아동보건원>설립.
인도·버마·파키스탄·인도네시아·스리랑카 방문.

9) 문혁기간과 만년 ; 1965~1981年(72歲~88歲)

4인방 ; 강청, 요문원, 장춘교, 왕홍문.
홍위병이 손문기념관 파괴. 부모 무덤 훼손. 거처 침입. 모든 활동 중지.
1975년 장개석 사망. 1976년 주은래, 모택동 사망.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1981년 송경령 사망.

— 중국을 사랑한 혁명 정치가 송경령 —

송씨 집안의 세 자매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인간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중국 혁명과 20세기의 역사에 남을 귀중한 증언을 함축하고 있다.

송애령(공상희 부인), 송경령(손문 부인), 송미령(장개석 부인)의 아버지 송가수는 해남도의 가난한 상인의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 보스턴에서 상업을 하는 친척의 양자가 되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장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 곳을 도망쳐 나와 전전하다가 독지가의 도움으로 공부하게 되어 신학대학을 졸업하였다.

1886년 귀국하여 『만국공보』의 발행인으로 유명한 영 알렌 밑에서 기독교 전도사로 일했지만 알렌의 권위적인 태도에 불만을 느껴 독자적인 전도활동을 하기 위해 사임했다. 그 후 그는 상해에서 제분공장과 인쇄소를 경영하는 부르주아로 성장하였고 한편으로는 일찍부터 손문의 혁명활동을 지원하였다. 어머니 예계진은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여자중학까지 졸업했다.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미션계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복음주의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낌없는 도움을 주는 여성이었다.

가정교육은 상당히 엄했지만 장녀인 송애령과 동생 송미령은 꽤 활달했고 송경령은 내성적이며 온순했다고 한다. 세 딸은 모두 전족을 하지 않았으며 기독교계통의 중학을 졸업하였다. 애령은 미국 유학을 한 최초의 중국여성이었으며 몇 년 후인 1908년 경령과 미령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경령은 웨슬리안 여자대학 철학과에 진학하였다. 경령은 대학시절 학교잡지에 「유학생이 조국 중국에 미치는 영향」, 「20세기 최대의 사건」, 「현대중국의 여성들」 등 여러 편의 글을 실었다. 여기서 그녀는 “자유와 평등의 기반이 되는 박애를 실현하는 것이 20세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늘의 반쪽을 지탱하는 여성, 이 여성을 소외시킨 인류사회의 발전은 존재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는데 여기

서 우리는 그녀의 생애를 관철하고 있는 사상과 행동의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

1913년 웨슬리안대학을 졸업한 송경령은 8월 일본으로 건너가, 원세개의 반혁명적 통치로 그 당시 일본에 망명중이던 아버지와 언니를 다시 만나 기쁨을 나누고 다음날 손문을 방문하였다. 경령은 손문에게 혁명활동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였고, 곧이어 언니가 결혼하게 되자 언니가 하던 손문의 영문비서 일을 도맡아하게 되면서 손문을 보필하게 되었다. 늘 영웅으로 숭배하던 손문 곁에서 일하면서 경령은 그의 강인한 불굴의 의지와 혁명원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효율적인 사무능력과 어학력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조국애에 손문은 위안과 감동을 받으며 두 사람은 열정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합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놓여있었다. 27년이라는 큰 연령 차이, 손문의 본부인과 3남매 또한 경령 부친의 강력한 반대와 주변의 수군거림... 그러나 1915년 가을 두 사람은 난관을 무릅쓰고 결혼하였다. 손문의 나이 49세, 경령의 나이 22세였다. 송경령은 훗날 에드가 스노우에게 그때의 감정은 연애라기보다는 구국운동을 돕고자하는 마음이었으며 손 박사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공동의 이상은 '세대차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었으며 혁명투쟁 속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재발견하였다.

손문과의 결혼생활 10년은 송경령에게 있어서 정치를 익히고 혁명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손문 만년의 중요한 시기에 정치적 사고와 행동에서 모든 것을 그와 함께 하였으며 또한 손문 만년의 정책이나 주의(主義)에 그녀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나 1925년 3월 손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자 지도자이며 스승이며 동지였던 손문을 잃고 홀로된 경령의 나이 32세였다.

손문 사후 송경령은 주저앉지 않고 손문의 삼민주의와 반제국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독립된 혁명정치가로서 자립하였다. 이후 국민당중앙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국민당 좌파로서 무한정부 수립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장개석의 4·12 반공쿠데타 이후 무한정부의 붕괴로 이어진 반혁명적 사태에 직면하여 송경령은 손문과 장개석 사이의 이념적 단절은 통감하고 국민정부와 결별한 후 모스크바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다. 이후 모스크바와 베를린에서 가난하고 힘든 망명생활 중 장개석과 형제자매의 유혹을 뿌리친 채 혁명사상을 공부하며 로맹 롤랑, 조지 버나드 쇼 등 세계적 반전·반파시즘 인사들과 교류하며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1931년 귀국 후 만주사변 이래 일본의 중국침략에 대한 국내저항운동과 국제적 반제국주의, 반전·반파시즘 활동과 연계하여 반장(反蔣) 민권운동과 항일민족통일전선 형성에 주력하였다. 중일전쟁이 끝난 후 국공내전을 거치면서 장개석 국민당의 반민중적 정책에 반대하여 그녀는 끝내는 중공정권 건설에 합류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는 국가 부주석, 전국부녀연합회 명예주석 등 정부요직을 역임하며 여성과 아동을 위한 평화복지사업에 헌신하였다.

송경령은 손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좌경화 하였는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상을 결합시킨 기본적 사고는 청년 시기부터 만년까지 그녀 사상의 저류가 되었던 민족주의와 민주·박애사상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민권운동, 여성운동, 사회복지활동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송씨 집안의 세 자매는 같은 성장환경과 교육적 배경을 가졌으면서도 각자 매우 다른 사상적 노선과 삶의 형태를 가졌다. 언니 애령은 중국의 경제를 좌우한 거만의 부를 지녔으며 동생 미령은 장개석과 결혼함으로써 중국의 거대한 권력을 탐하고 쥐었으며 경령은 끝까지 민중 편에 서서 손문의 삼민주의 원칙과 정책을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주관적 요소로서, 자아의 성향이 그 인물의 발전과 사회적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송경령은 중국의 미완성 혁명이며 양심이다.”라고 한 에드가 스노우의 말이나,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는 위축되지 않고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모든 복잡한 정치상황에 직면하여 맞서나갈 수 있었

다.”고 한 해롤드 아이작스의 말이나, “그녀는 모든 기간동안 그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싸웠으며 그녀가 한 모든 행동은 그녀 자신의 이익을 희생시킨 것이었다.”고 말한 님 웨일즈의 말은 송경령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송경령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이성과 양심에 따라 실천해 나간 매우 용기 있는 훌륭한 여성이었다.

2. 송미령의 일대기(1897~2003)

장개석 부인. 1927~1949년까지 중국의 First Lady.

1949~1976년까지 대만의 First Lady 이후 미국에서 생활.

2003년 10월 106세로 사망.

1) 宋氏집안 ; 송기수 + 예계진 → 6남매 (3자매 애령, 경령, 미령)

2) 송경령 ; 손문과 결혼. 중국 최초의 First Lady(1915~1925)

3) 송미령의 미국유학 ; 1908年 (12歲)

뉴저지주 서미트 → 조지아주 더모레스트 → 조지아주 웨슬리안 대학 입학 → 마사추세츠주 웰슬리대학 졸업
→ 듀란트 장학금 수령 우수학생. 영문학 전공(부전공 철학)

4) 귀국 ; 1917年 (21歲)

YWCA 지도적 회원. 전국영화검열위원. 아동노동위원. 사교계의 여왕.

유기문과 연애. 손문의 추천으로 장개석과 선뵐. 부친 사망(1917). 손문 사망(1925)

5) 장개석과 결혼 ; 1927年 (송미령 30歲, 장개석 40歲)

장개석 - 보정군관학교 → 일본육군사관학교 → 광둥군정부 참가 → 소련 군사제도 시찰 → 황포군관학교 교장.
언니 송경령은 모스크바 망명중.

큰언니 송애령의 결혼작전 성공. 12월 1일 결혼.

6) 장개석의 공산당 토벌작전 ; 결혼 후 장개석을 수행 (비서, 통역관, 외교고문)

항공용병대 창설. 전선상황 취재. 열사유족학교 경영. 공산당토벌전 동행참가.

1934년 신생활운동 전개 (禮,義,廉,恥) ← 대중적 인물로 부상, 송경령의 비판

7) 서안사변 (1936.12.12) 과 활약

장개석이 초공전을 반대하는 장학량 등에 의해 서안에서 납치 구금됨.

서안공격파(하응흡)을 억제하고 자진해서 서안으로 날아가 평화적 사건 결.

담력과 외교력 과시.《Times》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성”으로 선정.

8) 중일전쟁 발발과 제2차 국공합작 (1937~1941) : 3자매의 단결

여성구국활동 종사. 중국전시아동보육회. 중국부녀항적후원회 결성.

여산부녀담화회 개최. 신생활운동부녀지도위원회지도.(중국여성계 연합, 공동항일).

3자매는 단결하여 중국전쟁의 참상과 구제를 요청하는 대미(對美)방연설.

환남사변 이후 국공합작 붕괴.

9) 송미령의 외교수완 (1942~1944)

1943년 2월 미국 상하원에서 연설(기립박수 받음)

1943년 미국에 송미령의 바람이 불. 미국은 15억 달러 중국에 무상지원. 루즈벨트 대통령 부처와 친밀한 관계.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 동석. 외교적 걸출한 능력 발휘.

10) 국공내전 (1946~1949)

요심전투. 회해전투 당시 장춘, 금주 방문. 위립항, 변한걸 장군 격려.

마지막 미국방문(1948.11):미국의 냉담. 4대가족(將, 宋, 孔, 陳)의 부패 부정.

11) 장개석의 하야 → 대만으로(1949)

요심, 평진, 회해전투 패배 → 장개석 하야. 총통대리 이종인.

장개석, 송미령. 돈, 금, 은, 보물 대만으로 옮김. 눈물을 삼키며 다시 시작

대만에서의 생활(1949~1976) : 장개석 대만총통, 퍼스트레이디 송미령.

중공의 유엔가입 저지(1954). 장경국의 독주와 불화(장경국, 장위국).

1971년 10월 25일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중공의 유엔가입.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소외됨.

12) 미국에서의 생활(1976~2003) : 만년의 외교적 생활

98세(1995) : 미국의회에서 승전 50주년 기념연설. 100세(1997); 생일잔치

2003년 10월 106세로 뉴욕 근교의 롱아일랜드에서 사망.

대만의 장개석 옆에 묻히지 않고 뉴욕근교의 펀클리프 공동묘지에 묻힘.

- 대만의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장개석 부인 송미령(1897~2003) -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 귀국한 후 부르주아로 성장한 아버지 송가수와 독실한 기독교집안 출신으로 현대적 교육을 받은 어머니 예계진 사이에서 1897년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송미령은 언니 애령, 경령 그리고 오빠 자문 다음으로 딸로는 셋째였다. 동일한 성장환경과 교육속에서 자랐으면서도 세 자매는 각기 다른 인생관을 갖고 서로 다른 인생행로를 걸어갔다. 중국 4대재벌 가운데 하나인 절강재벌 송가수는 세 여걸을 딸로 두었다. 첫째 애령은 돈을 사랑했고, 둘째 경령은 나라를 사랑했고, 셋째 미령은 권력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럼 미령의 인생역정을 살펴보자.

미령은 1908년 12살 되던 해 언니 경령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처음 1년은 뉴저지주 서미트에서 공부한 후 조지아주 더모레스트에서 공부하였으며 1912년 조지아주 메이컨시에 있는 웨슬리안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녀는 나이가 모자랐으므로 특별학생으로 입학했다. 다음해인 1913년 보호자 노릇을 하던 경령이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자 혼자 남게 된 미령은 오빠가 있던 마사추세츠주의 웨슬리대학 1학년으로 전학하였다. 하버드대학에 다니는 오빠 송자문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였다. 웨슬리대학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하였는데 그 외에도 철학, 수사학, 음악, 천문학, 역사학, 교육학, 강연술 등을 배웠다. 특히 졸업 때는 가장 영예로운 듀란트학위를 받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였다.

대학졸업 후 1917년 여름 송미령은 10년 가까운 미국생활을 끝내고 귀국하였다. 방년 21세의 그녀는 상해 YWCA의 지도적 회원이 되었으며 또한 전국영화검열위원회에서 활약하였고 1923년에는 아동노동위원회에 참가하였다.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기 위해 몇 년간 개인지도를 받았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연설에 재능이 있었다. 이

같이 학습과 각종사업에 참가하면서 또한 상해 사교계에서 떠오르는 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예쁘고 세련되고 교양이 있으며 화려하고 멋지게 꾸밀 수 있는 돈도 있었으며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는 영어회화실력은 그녀를 크게 뒷받침해 주었다. 사교모임에서의 그녀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고 못남성이 그녀에게 청혼하였으나 거절하였다. 특히 유기문과는 미국 유학시절부터 깊이 사귀는 연애편제였다.

그러나 미령은 “너는 장개석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통치하는 황제와 결혼하는거야”라는 언니 애령의 설득과 First lady가 되고 싶은 미령 자신의 야망 때문에 여자관계가 복잡한 장개석과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때 미령의 나이 30세, 장개석의 나이 40세였다. 처음 모친 예계진은 반대하였으나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장개석의 말에 끝내 결혼을 승낙하고 만족해했다. 1927년 12월 1일 성대한 결혼식이 상해에서 채원배의 주례로 거행되었으며 미령은 드디어 언니 경령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다. 이때 송경령은 망명한 모스크바에서 추위와 고통에 떨고 있었다. 경령은 “그들 둘의 결합은 정치의 일부분이지 사랑이 아니다”라고 내뱉었다. 미령이 장개석 총통의 세 번째 부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은 사랑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지향이었다.

결혼 후 미령은 북벌을 거행한 장개석을 따라 남경에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며 장개석의 결합을 잘 보좌하여 상당한 정치적 작용을 하였다. 1933년 장개석을 따라 공산당 토벌작전에 참가하였고 1934년에는 신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 그후 1936년 미령은 남편이 감금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서안으로 뛰어들어 장학량과 담판 끝에 남편을 구해냈다. 이 서안사건으로 1937년 미국의 주간지『타임』은 송미령을「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성」으로 선정했다. 지난 40년대 그녀는 미국의회를 상대로 정열적인 로비활동을 펼쳐 미국의 원조를 끌어냈으며, ‘차이나로비’의 주역으로 대접받았다. 1943년에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청으로 외국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미국 원조를 요청하는 연설을 하여 기립박수를 받았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선교사가 중국에 예수를 전했듯이 송미령은 미국에 중국을 알렸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송미령은 탁월한 언변과 정열적인 외교활동으로 수많은 신화를 남겼다. 공산당에게 패한 뒤 대만으로 건너온 후 남편을 도와 자유중국정부의 강력한 배후가 된 그녀에게 있어 권력이란 의지를 성취하고, 상황을 조절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다. 뛰어난 미모와 능력으로 송미령은 송경령에 못지않을 만큼 중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여성이었다. 장개석 총통을 세계적 인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으나 자녀를 낳지는 못했다. 그 후 남편이 사망한 1975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근교의 롱아일랜드에서 살았다. 그녀는 이제 사라졌으며, 2003년 10월 106세를 일기로 사망함으로써 3세기에 걸쳐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981년 송경령이 사망하기 전 중국 정부는 동생 송미령에게 전보를 썼으나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1949년 대륙이 공산화된 이후 헤어진 경령, 미령 자매는 「세기의 이산자매」가 되어 죽을 때까지 서로 만나지 못했다.

2차대전의 유일한 생존주역으로 불리며 兩岸과 미, 중 관계의 살아있는 교과서로 인정받는 송미령은 1995년 98세의 노구를 이끌고, 미국의회에서 종전 50주년 기념 연설에 참가함으로써 다시 한 번 뉴스에 올랐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대만인들에게 송미령은 「영원한 First lady」로 남게 하였다.

[두 사람의 다른 인생관, 다른 인생행로의 원인] 같은 부모, 같은 교육, 환경

1)주관적 조건 ; 자아의 개성(성향)의 차이(애국적, 박애적 ; 현실적, 권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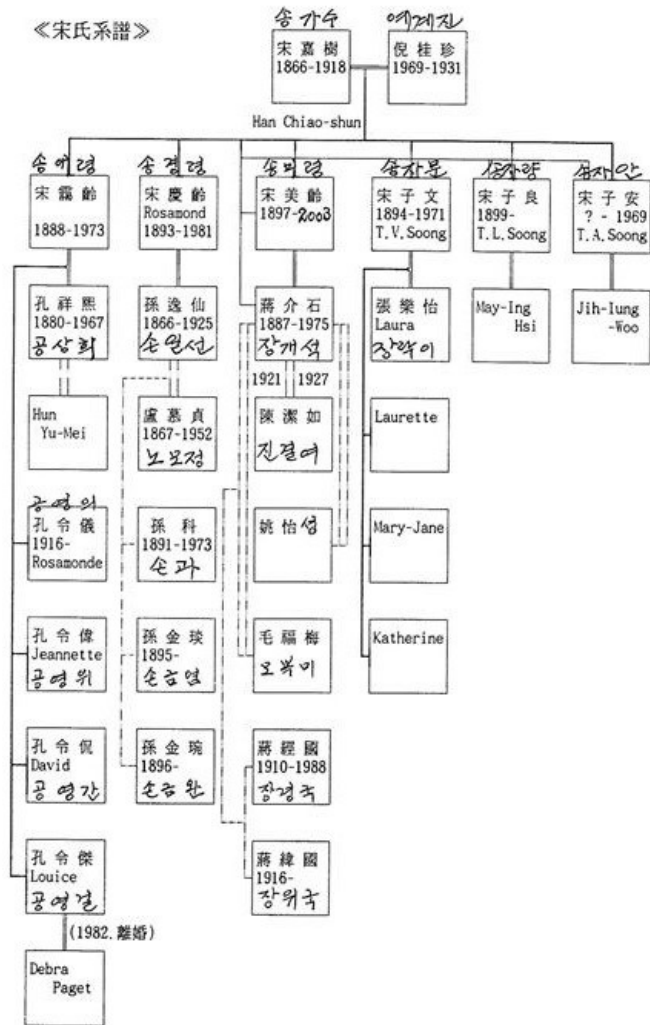
2)객관적 조건 ; 주변 인물과의 인간관계 및 영향(손문, 요중개 ; 장개석, 송애령)

3)역사적 조건 ; 정치적 사회적 상황(군벌 진형명 반란, 손문 사망, 장개석 배신, 요중개 암살, 등연달 살해 ; 최고의 권좌에서 권력의 만گی)

* 중국현대사 연표 *

1912	중화민국성립
1913	제2혁명(反袁世凱(반원세개)운동)
1915	日本の 21개 조항 요구, 袁世凱(원세개)의 帝制 (제제)기도
1916~1928	軍閥(군벌)통치시대
1919	5·4운동, 중국국민당 결성
1921	중국공산당 결성
1924	第1次 國共合作(제1차국공합작) (國民革命; 국민혁명)
1926	국민혁명군의 北伐(북벌) 시작
1927	蔣介石(장개석)의 4.12쿠데타, 국공분열, 남창봉기,
1928	北伐 완료, 남경정부 성립
1931	만주사변, 만주국 성립
1934	中國共產黨의 2만5천리 大長征(대장정)
1935	幣制(폐제)개혁, 遵義(준의)회의
1936	西安(서안)사건 발생
1937	中日전쟁, 第2次 國共合作
1942	中共의 整風(정풍)운동
1945	중국 慘勝(참승). 국공 쌍십협정
1946	政治協商會議 (정치협상회의)개최 국공내전시작
1949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958	人民公社(인민공사) 출범
1959	티베트 반란
1964	中蘇(중,소)대립 격화
1966	文化大革命 (문화대혁명)개시(~1976)
1971	중국 유엔가입
1975	蔣介石(장개석) 사망
1976	朱恩來(주은래), 毛澤東(모택동) 朱德(주덕) 사망
1977	華國鋒(화국봉) 집권
1978	鄧小平(등소평) 체제 확립
1989	天安門 (천안문)사건
1993	江澤民(강택민) 체제 성립, 韓中(한, 중)수교
1997	鄧小平(등소평) 사망
2003	胡錦濤(호금도;후진타오) 체제 성립
2013	習近平(습근평;시진핑) 체제 성립.

* 송씨 계보 *



강사소개

동의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영남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사학회 회장 역임하고 현재 고문으로 있으며 한중인문학회에서 고문직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송경령 연구』, 『조선에서의 원세개』, 『역사를 움직인 중국 여성들』, 『감국대신 위안스카이- 좌절한 조선의 근대와 중국의 간섭』, 『20세기 중국을 빛낸 자매, 송경령과 송미령』 등이 있고 역서로는 『중국혁명의 기원』, 『송미령 평전』, 『주은래와 등영초』, 『사료로 보는 중국여성사 100년』 등 다수가 있다. 또한 『부산시단』과 『문학시대』 등을 통해 등단하였고 현재 문학시대인회 회원, 효원수필문학회 동인, 부산시인협회 회원으로 있다.

있음과 없음, 그리고 황홀(恍惚)

이성희(동양철학 박사, 시인)

1. 도가사상과 은사의 문화와 구름의 세계

◇ 석도 <위명육선생산수책>

-산수화의 탄생; 산수화-위진남북조(221~589) / 서양 풍경화-르네상스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는 춘추전국 이후 대혼란기
-노장사상을 추종하여 세속을 벗어난 산수를 애호하는 隱士(죽림칠현; 완적, 혜강, 왕융, 산도, 상수, 유령, 원함)-->玄學

-구름의 존재론

山中何所有 山 중에 무엇이 있는가?
嶺上多白雲 산에 흰구름만 많습니다
只可自怡悅 단지 스스로 즐길 수 있을 뿐
不堪持寄君 부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陶弘景)

松下問童子 소나무 아래 동자에게 물으니
隱士採藥去 스승은 약초 캐러 갔다고 하네
只在此山中 어딘가 이 산중에 계시거늘
雲深不知處 구름이 깊어 있는 곳 모르네
(賈島 <尋隱者不遇>)



◇ 최자충 <장운도(藏雲圖)>

이 그림은 당대 대시인 이백의 고사를 취한 것이다. 이백이 地肺山에 거주할 때 일찍이 병에 산중의 자욱한 구름 띠를 담아 거소에 돌아와 방안에 뿌리고 “日飲清泉臥白雲”이란 시구를 얻었다는 고사.

2. 황홀(恍惚)

※ 노자 14장

視之不見名曰夷: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라 이름하고

聽之不聞名曰希: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희'라 이름하고

搏之不得名曰微.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것을 '미'라 이름한다.

此三者, 不可致詰, 故混而爲一. 이 셋은 깨물을 수 없으니 뒤섞여 하나를 이룬다.

其上不皦, 其下不昧, 그 위는 밝지 아니하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아니하다.

繩繩不可名,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데 이름붙일 수 없으니

復歸於無物. 존재가 없는 경계로 되돌아간다.

是謂無狀之狀, 無物之象. 이것을 형상 없는 형상, 존재가 없는 이미지라 한다.

是謂恍惚. 이것을 '황홀'이라 한다.

※ 정지용 <유리창>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마원 <고사관록도>와 브뤼겔 <축제와 사순절>

-李郭派와 馬夏派

-마원의 <高士觀鹿圖>;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참고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

3. 구름의 존재론과 무의 미학

1) 구름의 존재론

-미셸 세르 "시초에는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에 대한 정보는 누구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구름이라

불릴 수 있다. [...]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이를테면 가장자리가 유동하거나 용해된 구름 같은 것이다.”(『헤르메스』)

-孫綽 “경계를 알 수 없는 광대하면서도 드넓은 太畵은/순화되는, 저절로 그러한 신비스러운 존재/녹아서는 강과 수로를 형성하고/두터워져선 산과 구름으로 변하는 구나.”(『천태산부』)

-권운준, 운두준; 산중의 바위=구름 ◇ 안견 〈몽유도원도〉,

2) 있음과 없음 사이를 떠도는 황홀의 아름다움

여백, 여음, 여운, 象外之象, 無筆墨處而見筆墨

-無味 : 淡 〈노자〉35장 “道之出口, 淡乎其無味.” 〈장자〉 “汝遊心於淡, 合氣於漠.”

◇ 소동파 〈第18大羅漢頌第16尊者〉

盆花浮紅/ 篆烟繚青/ 無問無答/ 如意自橫/ 點瑟既希/ 昭琴不鼓 / 此間有曲 / 可歌可舞.

항아리의 꽃들은 붉게 떠오르고/ 향로의 연기가 푸르게 피어오른다/ 질문도 답도 없이/ 여의는 바닥에 가로놓여 있다./ 點은 비파소리를 찾아들게 하고/ 昭는 수금 연주를 그만두나/ 그 모든 것에 음률이 있으니/ 노래할 수도 있고 춤출 수도 있다네!

-이백 〈聽蜀僧濬彈琴〉: “客心洗流水/ 餘響入霜鐘”

-생명: 틈과 구멍의 존재

-無爲, 무기교의 기교, 야나기 무넨요시와 조선의 민예

-무와 여백(산수화), 여음(음악), 그리고 무위의 힘(춤과 붓)을 불러오지 못하면 동양 예술의 고수가 아니다.

강사소개

부산대학교에서 노자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고 장자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문예중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였으며 부산kbs 고전아카데미에서 10년 간 기획위원 역임하고 현재 부산의 인문고전문마을 ‘시루’에서 미학과 노장사상 강의 중이다. 저서로는 『無의 미학』, 『미학으로 동아시아를 읽다』, 『장자의 심미적 실재관』, 『동양명화감상』 등이 있다.

『韓非子』, 군왕의 길을 밝히다

김영철(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네 머릿속의 생각을 절대 남에게 드러내지 마라.

- 영화 「대부」 중에서, 비토 콜레오네

1. 宋나라 莊가네 술집의 그 달던 술은 왜 쉬어 버렸을까?

송나라에 莊 씨 성을 가진 술장사가 있었다. 매우 공정하여 되를 속인 적이 없었고, 손님을 대할 때도 공손했다.

술 빛는 솜씨도 일품이었고, 술집을 알리는 깃발도 드높이 휘날렸다.

그런데 손님들은 딴 집으로 가고, 장가네 술은 팔리지 않아 이내 쉬기 일쑤였다.

이상해서 마을 어르신 양천(楊脩)에게 물었다. 그가 말했다.

“그대 집의 개가 사납지 않은가?”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술 안 팔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손님들이 무서워서 발길을 돌리기 때문이야. 아이한테 술심부름을 시키면 개가 달려들어 물어뜯으려 하겠지. 그러니 안 팔린 술이 설 수밖에 ….”

- 「外儲說右上」(약간씩 다른 두 버전의 이야기를 합쳐서 재구성했다. 원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1.1. 국가 시스템(법과 제도)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음에도 나라가 어지러운 이유가 무엇인가? ‘개 같은’ 權臣들의 발호 때문이다.

1.2. 『韓非子』에서 통치의 일차적 대상은 관리들이며, 백성은 군주가 重臣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적 복리의 수혜자들이다. 韓非에게 애민이란 군주와 백성의 감성적 소통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重臣들의 국정농단을 분쇄함으로써 군주와 백성 사이의 차폐막을 걷어내고, 군주의 은덕이 重臣들에 의해 왜곡·변질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영명한 군주는 관리를 다스리지 백성을 (직접) 다스리지 않는다”(「外儲說右下」)고 했다. ‘맹견을 죽이는’(=신하를 장악·통제·懲治하는) 制臣의 기술이 治國의 요체로 작용하는 이유다.

1.3. 이런 문제의식은 군주 시해 사건이 빈번했던 戰國時代의 특수한 정치적 분위기에 기인한다. 韓非가 관찰한바 당시의 군신관계는 이익 지향적 타산 관계였고, 그들 사이에 骨肉의 친함을 기대하는 것은 儒家의 푸르른 꿈에 불과했으며, 權臣들에게 겁박·시해·폐립당한 군주들의 최후는 “문둥이조차 왕을 불쌍히 여길”(「姦劫弑臣」) 만큼 처참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 ▶ 楚王子 圍(위)는 鄭에 사신으로 가다가 국경을 채 넘기도 전에 王의 외병 소식을 접하고 문병을 구실로 되돌아와 갓끈으로 王을 교살한 후 스스로 보위에 올랐고,
 - ▶ 齊莊公은 大夫 崔杼(최저)의 아내와 사통하다가 崔杼의 수하 賈舉(가거)에게 척살 당했다.
 - ▶ 李兌(이래)가 趙의 실권을 장악한 후 主父(조보)를 백일 동안 굶겨 죽이고,
 - ▶ 卓齒(탁치)가 齊의 실권을 장악한 후 湣王(민왕)의 힘줄을 뽑고 묘당 대들보에 하룻밤을 매달아 죽였다.
- 「姦劫弑臣」

1.4. 이런 처참한 비극에 당면하여, 군주에게는 신하들을 ‘입맛대로 요리할 레시피’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것이 『韓非子』 통치공학의 핵심인 ‘術’이다. ‘術’이란, 일차적으로 군주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유지·보존하기 위해 구사하는 ‘制臣術’을 의미한다. 군주는 곧 국가였고(君國同體論) 군주의 몰락과 죽음은 국가의 패망으로 이어지던 시대였다. 파국은 주로 重臣들의 농간에 의해 초래되었다. ‘制臣術’의 성패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었고, 治國의 성공 여부는 術治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었다.

1.5. 군주가 ‘術’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려면 어떤 품성과 내적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군주가 어떠한 군주다운 군주의 면모를 지니고 국정을 농단하는 신하들을 온전히 제압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이제 韓非의 대답을 들어보자.

2. 韓非의 통치술은 ‘虛靜’·‘無爲’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2.1. 하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라: ‘無爲’

2.1.1. ‘無爲’의 철학적 함의: 『老子』

智慮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다.(不以智治國, 國之福.)” - 『老子』 65장

“不以智治國”은 나라를 ‘아예 다스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스리되 知慮로써 다스리지는 않겠노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無爲’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지 않다’, ‘하는 바가 없다’ 정도가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이고 억지스런 노력이나 간섭을 강행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킨다.**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에 기래어 감히 작위를 가하지 않는다.(恃萬物之自然而不敢為.) - 『老子』 64장

말하자면, “매사 自然(스스로 그러함)에 순응하여 행위하고, 객관적 법칙에 위배되는 짓을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 것”(張覺)이 ‘無爲’의 철학적 함의다.

2.1.2. ‘無爲’의 정치적 함의: 『韓非子』

영명한 군주는 위에서 無爲하지만, 신하들은 아래에서 두려움에 떠난다. - 「主道」

권세는 드러내려 하지 말고 늘 無爲인 채 두어야 한다. 실무는 각지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맡기고, 군주는 중앙에서 통치의 요체만 쥐고 있으면 된다. - 「揚權」(乾道本の 편명은 '揚權' 이다.)

'無爲'의 정치적 함의는 “君臣이 모두 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巧智로 法治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며, 군주는 자기의 재능과 惡好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신하들이 그 점을 군주의 통치에 악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張覺)이다. 이는, 군주의 통치 행위에서 개인의 巧智와 주관적 편견 같은 사적 의도는 배제되고, 오롯이 法이라는 객관적 잣대에 의존함이 마땅하고 옳은 방략이라는 뜻이다.

2.2. 비워라, 고요하라: '虛靜'

虛靜한 자세로 無爲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治道の 참모습이다. - 「揚權」

군주는 움직일 때나 쉴 때나 無爲의 모습으로 신하를 다스려야 한다. - 「揚權」

2.2.1. '虛靜'은 '텅 비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음'이다. 비어 있지 않으면 고요하지 못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안정될 수 없다.

2.2.2. 德은 군주 몸에 깃들어야 하고, 德이 군주 몸에 깃들기 위해서는 먼저 군주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며, 한 번 몸에 깃든 德이 군주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요한 상태를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虛靜과 無爲는 군주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군주의 통치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3. 침묵하고 경청하라.

3.1. 군주는 침묵하고 경청하고 관찰한다. 군주의 虛靜은 절대 침묵이고, 경청은 침묵으로써만 보장되며, 경청해야 신하의 속내와 능력을 가늠하고 성과를 저울질하여 상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청을 위한 군주의 침묵은 신하보다 먼저 입 열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무릇 신하의 말을 경청하는 요체는 신하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근거로 그 성과를 따져보는 데 있다. 신하의 말을 자세히 살펴 그에 걸맞은 자리를 주고, 직분을 명확히 하여 일의 종류를 구별한다. 신하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은 마치 크게 술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신하들아,] 입술과 이를 놀려 유세해 보아라. 내가 먼저 입을 열지는 않으리라. [신하들아,] 이와 입술을 놀려 잘난 척해 보아라. 나는 더욱 어리벉벉한 척하리라. 그래들이 스스로 그래들의 생각을 토로하면 나는 그것으로 모든 실정을 알 것이니라. - 「揚權」

3.2. 여기서 군주는 완전한 침묵 속에 철저히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신하로 하여금 마음껏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터전을 마련한 후, 오로지 듣는 데만 집중한다.

옳으니 그르니 異見들이 폭주해도 군주는 그들의 논쟁에 휩쓸리지 않는다. - 「揚權」

군주는 어떤 논의에도 개입하지 않고 오직 신하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들 뿐이다. - 「揚榘」

3.3. 신하들의 의견에 감정이 흔들린다거나 자신의 다음 할 말을 생각하는 일은 없다. 군주는 이때 듣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無爲). 군주의 마음은 비어 있고(虛) 거울처럼 고요하다(靜). 군주는 오직 듣는 데 몰입함으로써 신하의 모든 계획과 능력과 진심을 심찰하는 것이다.

3.4. 그의 겉모습은 비록 大醉한 것 같고 신하의 현란한 말솜씨에 어리벉벉해져 있는 듯하지만, 실은 그 냉철한 속 내를 감추고 들키지 않았을 따름이다. 군주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신하가 참다못해 말하게 되어 있고, 군주가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신하가 어쩔 수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 군주가 신하들의 간계에 놀아나지 않고 신하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책의 근본이 바로 군주의 虛靜이다.

3.5. “적을 드러나게 하고 아군을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것” (『孫子兵法』 「虛實」: “形人而我無形.”)이 用兵術의 기본인 것처럼, 군주가 無念・無心・無欲・無情・無爲하여 신하는 군주의 意圖를 모르되, 군주는 신하의 企圖를 훤히 꿰뚫어 보는 방략이 制臣術의 기본이다.

군주는 虛靜의 자세로 아무 일 안 하고도 은밀히 신하들의 허물을 알아차린다.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고도 모르는 척한다. - 「主道」

4.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마라.

4.1. 군주는 자신의 욕망과 의도를 숨겨라.

군주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드러내면 안 된다. 군주가 바라는 바를 드러내면 신하는 [군주의 욕망에 영합하려고] 자신을 꾸미려 들 것이다. 군주는 자신이 뜻하는 바를 드러내면 안 된다. 군주가 뜻하는 바를 드러내면 신하는 남다른 재능을 보이면서 군주의 뜻에 맞추려 할 것이다. 또한, 군주가 싫고 좋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가 바로 속내를 드러낼 것이고, 巧智와 재능을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는 이내 [군주를 헤아릴 길 없어] 스스로 대비하여 처신할 것이다. - 「主道」

4.1.1. 전제: 군주의 처신에 따라 신하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신하들은 어차피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군주의 눈에 들어야 하고, 군주의 비위를 맞추는 과정에서 갖은 간악하고 사특한 짓거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

4.1.2. 사례: 신하가 간악한 짓을 일삼는 여덟 가지 유형(八姦) 가운데 둘째가 “在旁(재방)”, 즉 군주의 측근들이다. 이들은 광대와 난쟁이와 군주의 좌우에서 시종드는 자들로서, 군주가 명하기도 전에 그 뜻을 헤아려 대령하고 군주의 안색과 심기를 살펴 군주의 심중을 짐작하며 그 향배에 따라 비위를 맞춘다. 신료들은 군주의 최측근인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안으로는 은밀히 뇌물을 바치고 밖으로는 갖은 불법을 자행하여 군주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八姦」 참조) 군주가 이런 자들에게 농락당하는데 나라가 보전될 리 없다. 그래서 군주는 자신의 욕망을 측근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4.2. 군주는 자신의 감정을 숨겨라.

4.2.1. 군주는 자신의 愛憎과 喜惡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揚推」은 마음의 빈자리(虛心)에 비로소 道가 깃들고, 마음을 비우려면 먼저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버려야 한다(去喜去惡)”고 충고한다.

4.2.2. “去喜去惡”의 ‘去’(버리다): 사람이 喜惡의 감정 자체를 자유자재로 없앨 수 있다는 뜻으로 새기면 안 된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去’는 喜惡의 기미를 표출하지 말고 심중에 은닉해 두라는 요구의 상징적 표현이다. 또한, 군주가 실제로 감정을 ‘버리고 아니 버리고’는 여기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관건은, 군주의 표정과 안색과 용모에 전혀 喜怒哀樂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서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吳章(事跡 未詳의 인물)이란 자가 韓宣王에게 올리는 진언:

군주는 거짓으로라도 남을 사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언젠가 [미워해야 될 때] 다시 미워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또 거짓으로라도 남에게 미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언젠가 [사랑해야 될 때] 다시 사랑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거짓으로라도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기미가 보이면 아첨꾼들이 이를 빌미로 그 사람을 치켜세우거나 헐뜯습니다. 그리되면 영명한 군주라 해도 다시 되돌릴 방도가 없어집니다. 하물며 진실한 속 마음을 남에게 드러내면 어찌되겠습니까!” - 「外儲說右下」

4.2.3. 아첨꾼들은 군주의 惡好·愛憎을 이용하여 인재 식별의 판단력을 흐려놓는다.

군주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신하들은 군주가 싫어할 만한 꼬투리를 숨기고, 군주가 좋아하는 기색을 보이면, 신하들은 능력이 없어도 있는 척하고, 군주가 욕망을 드러내면 신하들은 자기네 행동거지를 꾸밀 기회를 얻는다.
- 「二柄」

4.2.4. 군주가 신하들에게 자신의 愛好를 드러냄으로써 야기되었다는 환난의 사례들(「二柄」 참조):

- ▶ 越王이 용맹을 좋아하니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백성이 많아졌다.
- ▶ 楚靈王(초영왕)이 가는 허리를 좋아하니 도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졌다.
- ▶ 齊桓公이 질투가 심하고 여색을 밝히니 豎刁(수조)는 스스로 내시가 되어 후궁을 관리했다.
- ▶ 齊桓公이 미식을 즐기자 易牙(역아)가 제 자식의 머리를 삶아 바쳤다.
- ▶ 燕王 噲(채)가 현자를 좋아하니 子之는 나라를 물려줘도 받지 않을 것처럼 가식을 떨었다.
(요임금이 許由에게 선양하려 했을 때 허유가 받지 않았으니 명예와 천하가 모두 요임금에게 돌아갔듯이, 燕王도 子之에게 선양하면 子之가 결단코 받지 않을 것이므로 요임금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사양하는 척하던 子之가 대권을 접수하는 바람에 子之의 권세만 막강해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子之는 현자를 빙자하여 군주의 자리를 빼앗았고, 豎刁와 易牙는 군주의 욕망을 빌려 군주의 권한을 침탈했다. 결국 燕王 噲는 난리 통에 죽고, 齊桓公은 구더기가 문 밖으로 기어 나올 때까지 葬事도 지내지 못했다. - 「二柄」

이 모든 것이 “군주가 자신의 감정을 신하에게 드러낸 데서 비롯된 환란이다. 신하된 자의 진짜 속내는, 자기 군주를 반드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익만 소중히 여기면 된다고 여기는 까닭이다.” (「二柄」) 그러

므로, “좋은 내색도 싫은 내색도 하지 말아야 신하들이 진심을 드러내고” “신하들이 진심을 드러내면 군주의 이목이 가려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二柄」)

4.2.5. 요약: 영명한 군주는 신하를 꿰뚫어 보되, 신하로 하여금 군주를 꿰뚫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급변 사태에 직면할지라도 군주는 내색하지 말고 늘 텅 빈 듯 고요해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군주의 감정이 아니라 ‘法’과 ‘術’이라는 객관적 시스템이다.

영명한 군주는 남을 관찰하지 남이 자신을 관찰하도록 하지 않는다. [...] 법술로 나라를 다스리면 신하를 관찰하는 방법을 완벽히 갖추게 된다. - 「觀行」

4.3. 군주는 자신의 賢能과 巧智를 숨겨라.

슬기롭고 영명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은 智謀와 技巧을 버리는 것이다. 지모와 기교를 버리지 않으면 [군주의 方略을 治國의] 常道로 삼기 어렵다. - 「揚權」

[군주는] 지혜로워도 자신의 지혜로 계획을 짜지 않고 만물이 제 있을 곳을 스스로 알게 한다. 현능해도 자신의 현능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신하들이 일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용맹해도 스스로 발분하지 않고 신하들로 하여금 무력에 힘쓰도록 한다. 그러므로 지혜를 드러내지 않아서 총명을 얻고, 현능을 드러내지 않아서 공을 쌓으며, 용맹을 드러내지 않아서 더욱 강해진다. - 「主道」

4.3.1. 군주에게 지혜와 현능과 용맹의 덕목이 아예 없어도 된다거나, 설사 있다 해도 버리고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去智’·‘去賢’·‘去勇’은 智·賢·勇의 ‘없앰’과 ‘버림’이 아니라 ‘숨김’과 ‘감춤’이다. ‘去’에는 ‘버리다’라는 뜻이 있지만, ‘멀리하다·돌보지 아니하다·피하다·거두어들이다’라는 뜻도 있음을 감안할 때, 『韓非子』의 “去智”는 巧智를 내려놓고, 멀리하며, 전면에 내세우지 말 것을 종용하는 뉘앙스가 더 짙다.

4.3.2. 그럼에도 『韓非子』가 설정하는 군주의 이미지는 신하의 눈에 ‘마치 지혜가 없는 듯’ 텅 비어 보이는 군주다. 군주는 虛靜한 상태로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하면서(無爲) “만물이 제 있을 곳을 스스로 알도록(使萬物知其處)”, 즉 신하들이 자신의 직분을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유도한다.

군주의 道는 고요히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을 보배롭게 여기는 데 있다. 군주는 政事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도 일의 成敗를 알아야 하고, 계책을 직접 세우지 않고도 복과 재앙의 조짐을 알아야 한다. - 「主道」

4.3.3. 위 인용문은 군주가 아무리 탁월한 智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모를 활용해서 직접 생각을 짜내거나 계획을 수립하지는 말라는 권유다. 군주는 자신의 현능을 자질구레한 실무에 소비함으로써 신하들에게 군주의 역량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 그것은 ‘無爲’가 아니다. 다만 신하들이 무엇에 근거하여, 어떤 이유로 실무를 처리하는지만 조용히 관찰할 뿐이다.

군주가 자신의 재능을 내보이지 않으면 신하들은 어차피 속내와 純正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 「揚權」

4.3.4. 요컨대, 군주는 ‘去智’·‘去賢’·‘去勇’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총명을 얻고 공적을 쌓으며 군사

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다. 감추고 숨긴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듯 보이는데, 사실상 制臣術 하나로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去智’·‘去賢’·‘去勇’을 통하여 진정한 ‘智’·‘賢’·‘勇’을 획득하는 것, 이것이 『韓非子』가 말하는 “聖君之道”다.

5. ‘無爲’의 정치적 효용

신하들에게 자신의 직분을 지키게 하고, 百官들에게 일정한 法度를 지키게 하며,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일을 시키는 것을 翫常이라 한다. 그래서, 고요하여 그 자리에 없는 듯 자리하고, 텅 비어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다. 明君은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하들은 아래에서 두려움에 떠는다고 했다. 明君의 道는, 智者로 하여금 스스로 智慮를 다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일을 결단하기 때문에 군주의 지혜는 다함이 없다. 賢者로 하여금 스스로 재능을 다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임용하기 때문에 군주의 재능은 다함이 없다. 功이 있으면 군주가 칭송 받고, 過가 있으면 신하에게 책임을 지운다. 그래서 군주의 명예는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군주가 현명하지 못해도 賢者를 거느리고, 지혜롭지 못해도 智者의 우두머리가 된다. 신하는 노고를 다하고, 군주는 그 성과를 누린다. 이를 일러 明君의 常道라 한다. - 「主道」

5.1. ‘고요히 물러나, 있는 듯 없는 듯 그 소재를 모르게 하는’ 가운데 **사실상** 군주는 세 가지를 ‘하고’ 있다. 첫째, 신하들에게 자신의 직분을 지키게 하고, 둘째, 百官들에게 일정한 法度를 지키게 하여, 셋째,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 셋을 일컬어 ‘翫常’이라 한다.

5.2. 군주가 늘 ‘실천해야(習) 할 ‘변치 않는 法道(常)’, 즉 ‘翫常’은 대체로 군주가 ‘신하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것들을 하게끔 시키고 군주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패턴을 지닌다. 군주는 신하 각인들로 하여금 武力을 다하고 智慮를 다하며 재능을 다하게 하면서도, 신하의 근면과 업무 능력이 이룩한 성과는 오롯이 군주가 누린다. 功은 군주의 업적이요, 過는 신하의 책임이다. 수고는 신하가 하고, 성과는 군주가 차지한다. 어떤 경우든 군주의 명예는 보전된다. 明君의 道는 智者의 智慮를 군주의 지혜로 삼고 賢者의 재능을 군주의 재능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5.3. 『韓非子』의 ‘翫常’은 군주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신하 모르게, 은밀히 진행된다. 戰國時代 군주들에게 통치 행위의 **은밀성**은 制臣의 전제 조건이었다. 『韓非子』에서 군주가 ‘無爲’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제3자(신하)의 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주가 ‘無爲’한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었겠는가? 군주가 ‘無爲’하(는 척)하면서 신하의 ‘無不爲’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無不爲’를 성취하는 것이 『韓非子』式 ‘無爲而無不爲’의 본질이다.

5.4. 『韓非子』의 ‘無爲’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無爲’로 위장된 ‘有爲’다. 치밀하게 계산된 ‘有爲’를 ‘텅 빈 無爲’로 위장하는 것은 고도로 세련된 權謀術이다. “전쟁이 적을 속여 이루어지는 것”(『孫子兵法』 「軍爭」)이라면, 절대 군주의 制臣은 ‘신하를 속여’ 성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韓非子』가 이를 ‘無爲’라 주장하는 이유는, 군주의 의도와 목적과 계산이 완벽히 감추어져 있어서 신하들에게는 마치 군주가 “고요하여 그 자리에 없는 듯 자리하고, 텅 비어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5.5. 침묵 속에서 속내를 감추고 어디를 쳐다보는지도 모를 시선으로 신하의 일거수일투족을 뚫어질 듯 지켜보는 사나이 — 이것이 『韓非子』가 그리는 군주의 이미지다. 신하들의 눈에는 군주가 분명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군주는 자신들의 능력을 꿰뚫어 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적합한 직능을 배분한 다음 법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통제한다. 신하는 다만 군주에 의해 쓰임 받을 뿐, 감히 군주를 범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러하니, “明君은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하들은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내가 모르는 존재가 나를 안다는 것은 심각한 공포다. 『韓非子』의 制臣術은 이러한 공포를 배경으로 작동한다.

6. 떠나며

6.1. 지금까지 살핀 내용들이 군주가 자신의 몸과 자신의 나라를 보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군주의 자격’이다. 과연 역사상 몇 명의 군주가 이런 자격을 갖추고 나라를 다스렸는지, 또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정확히 가늠할 길은 없다.

6.2. 『韓非子』라는 고전은 급변하는 시대의 징표를 앞서 읽은 韓非가 조국 한나라의 안정과 영속을 갈구하며 피 토 하듯 써 내려간 제왕학의 매뉴얼이었고, 그의 아이디어는 명쾌하고 냉정한 현실 분석 덕분에 당대 군주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 漢武帝가 ‘獨尊儒術’을 결심하고 유학을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선포한 후 거의 2,000년 동안, 중국의 위정자들은 겉으로는 유가의 덕치를 표방하면서도 암암리에 법가의 통치방략을 애호하는 ‘陽儒陰法’의 길을 걸어 왔다.

6.3. 일견, 법가의 이론들은 도가처럼 ‘심오’하지도, 유가처럼 ‘숭고’하지도 않았으나 무엇보다 군주가 활용하기에 유리한 방책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정치 현장에서의 실제적 효용성이 탁월했다.

6.4. 이제 여러분이 ‘군주’를 ‘리더’로 바꾸어 읽은 뒤, 시공간을 뛰어넘어 각자 ‘삶의 현장’에 『韓非子』의 리더십을 적용해볼지 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고, 그 작동 여부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각자에게 있다.

강사소개

영남대학교와 독일 보쿰(Bochum) 대학교에서 철학 공부를 하고 영남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남대학교 철학과 강사를 역임하고 현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 번역서로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사회생물학 논쟁』, 『내 영혼의 치유제』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비자』 「해로」의 ‘도(道)’·‘리(理)’ 개념』, 『『노자』의 도기관(道器觀)』, 『『한비자』 「해로」의 “성인득지이성문장(聖人得之以成文章)”에 숨은 유(儒)·도(道)의 법가적 융합』, 『의미와 생명 — 리하르트 빌헬름의 ‘도(道)’·‘덕(德)’ 번역에 대하여』 등이 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사랑 이야기

김영필(전 대구교대 연구교수)

1. 들어가는 말

신화는 여러 신이 인간의 아바타로 등장하는 가상세계이다. 아바타 중의 아바타는 제우스이다. 신화는 현실을 초월한 가상현실이지만,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신화는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을 성찰할 수 있는 오래된 손때 묻은 거울과 같다. 신화는 오래된 미래이다.

신화 속의 인공지능의 흔적들이 많다. 신화는 비과학이 아니라, 선(先) 과학, 즉 과학의 선구자이다. 헤파이스토스와 다이달로스 같은 인공지능 과학자가 등장한다.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최초의 여인 판도라는 호모 노이드, 즉 인간 모습을 한 인공 여인이다.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는 자이다. 모든 신에게 좋은 것을 다 선물로 받은 이상적인 여인이다. 이외에도 미노스 왕의 경비병인 탈로스, 자율주행 삼발이, 피그말리온의 갈라테이아 등등. 호머의 『일리아드』에는 몸이 불편한 주인 헤파이스토스를 부축하는 인공 하녀가 등장한다. 이해력과 음성과 힘을 가진 하녀들이다. 스스로 움직여서 일하는 오토마타(automata)가 등장한다. 베틀 북이 스스로 천을 짜고, 현악기의 픽이 스스로 하프를 연주한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유형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사실상의(virtual) 이야기이다. 가짜가 아닌 가상의 현실 이야기다. 인간의 헛된 욕망이 벌이는 온갖 사실과 흡사한 이야기들이 '신'이란 이름으로 투사되고 객관화된다. 신화는 욕망의 인간학이다.

2. 신화 속의 사랑의 유형들

1) 권력과 사랑-제우스

(1) 메티스가 첫 연인이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다. 메티스는 크로노스가 삼킨 자식을 토해낼 때 약을 만들어 준 지혜의 여신이다. 가이아가 제우스에게 메티스가 아이를 낳으면, 너도 크로노스처럼 당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임신한 메티스를 파리로 변신시켜 잡아먹고 임신한 아기를 자신의 몸에서 키운다. 머리에서 태어난 신이 아테나이다.

(2) 테티스와 결혼하면, 낳은 아들이 제우스의 권력을 넘볼 것이란 신탁을 듣고 테티스를 인간 펠레우스에게로 보낸다. 이 사이에 아킬레우스가 태어난다.

(3) 헤라에게는 연약한 뼈꾸기로 변신해 구애에 성공한다. 자신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해서 성취한다. 변신이 자유로운 제우스이기엔 가능하다. 하지만 약한 자에겐 한없이 강하다. 아르고스 왕 아크리 시어스의 딸 다나에에게 비로

변신해 접근해 사랑을 나누고 페르세우스를 낳는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 <다나에>는 제우스의 욕정을 황금비로 그린다.

헤라의 하녀 이오에게 구름으로 변신해 사랑하려다 헤라에게 들켜,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켜 버린다. 헤라는 아르고스를 보내 이오를 감시하게 한다. 제우스는 이오를 찾기 위해 헤르메스를 보낸다. 헤르메스는 피리를 불어 잠든 아르고스를 죽인다. 헤라는 아르고스 머리에서 눈을 빼 자신의 공작 깃털로 만든다. 헤라는 무지개를 시켜 이오를 쫓게 하고, 쇠파리로 이오를 괴롭힌다. 이오가 쫓겨 건너간 곳이 보스포루스 해협이고, 이오니아해다. 이집트에 도달해 제우스와 재회하고 사랑을 나누고 에바보스를 낳는다. 알크메네에게는 남편 암피트리온으로 변신해 사랑을 나누고 쌍둥이를 낳는다. 그중 하나가 헤라클레스이다. 제우스의 사랑은 권력 확장과 유지의 수단일 뿐이다.

2) 교만과 화(火)로 이루지 못한 사랑- 아폴론

델포이 신전 앞의 왕뱀 피톤을 활로 죽이고 신전의 주인이 된 아폴론이다. 그는 자신의 활 솜씨로 교만해질 대로 교만했다. 에로스 앞에서 자신의 활 솜씨를 자랑한다. 에로스는 이에 대해 복수를 한다. 아폴론에게는 황금 화살을, 다프네엔 납 화살을 쏜다. 아폴론과 다프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프네는 월계수로 변한다.

아폴론은 코로니스를 사랑하였으나, 인간과 함께 살 수는 없었으므로 흰 까마귀를 보내어 감시하게 하였다. 어느 날 흰 까마귀가 날아와 아폴론에게 코로니스가 이스키스라는 자와 간통을 한다고 알렸다. 분노한 아폴론은 활을 쏘아 코로니스를 죽였지만, 이를 후회하며 슬퍼하다가 고자질한 까마귀를 원망하여 흰털을 새카맣게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아폴론은 뒤늦게 코로니스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불에 태우던 시신을 수습하여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냈다. 이 아기가 훗날 의술의 신이라고 부르는 아스클레피오스이다.

3) 조국을 망하게 한 사랑- 파리스와 카산드라

(1) 파리스의 모험적 사랑- 위험하지 않은 사랑이 있을까? 사랑하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것이 권태든, 미움이든 아니면 죽음이든. 사랑을 권력 유지로 도구화한 제우스와 비교되는 철없는 파리스의 사랑이다. 사랑에는 규칙이 없다. 국경을 넘어서지 말라는 국경이 없다. 일방적 사랑이지만 헬레네 역시 싫지 않은 얼굴로 트로이로 납치된다.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난 불화의 신 에리스가 황금사과 하나를 던져 놓고 사라진다. 이 사과에는 '가장 예쁜 사람에게'란 글귀가 쓰여 있다. 과연 이 사과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판단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심판관은 목동 파리스이다. 파리스는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과 헤카베 왕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 하지만 파리스가 트로이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신탁이 돌아, 산에 버려 버린다. 양치기로 살다가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심판관으로 초대된다. 아프로디테, 헤라 그리고 아테나 중 누구를 미스 그리스로 뽑을 것인가를 가리는 재판관이다. 그는 아프로디테가 자신을 뽑아 주면 헬레네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래한다. 파리스는 이 말을 믿고 아프로디테에게 황금사과를 준다. 아프로디테는 헬레네를 파리스에게 소개한다. 파리스는 헬레네를 납치하여 트로이로 간다. 헬레네는 스파르타 메넬라오스 왕의 아내이다.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에 쳐들어가고, 결국은 트로이는 망한다.

(2) 카산드라의 비겁한 사랑- 아폴론은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에게 구애한다. 카산드라는 아폴론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예언의 능력을 얻는다. 하지만 예언의 능력이 생기자 아폴론이 자신이 늙으면 버릴 것을 예언하고 약속과는 달리 아폴론의 사랑을 거부한다. 미래에 생길 위험을 계산해서 사랑을 거절한다. 이에 분노한 아폴론은 카산

드라의 예언을 누구도 믿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 목마를 성 밖에 두고 물러났다. 성안에서는 목마를 안으로 끌어들이야 할지 말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난다. 카산드라는 목마를 끌어들이면 트로이가 망한다는 예언을 하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결국, 목마를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트로이는 패망한다. 한 여인의 거짓 사랑이 조국을 망하게 한 셈이다.

4) 운명을 사랑한 오이디푸스(아모르 파티)

테바이 왕 라이오스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어미를 범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다. 산으로 데려가 죽이라고 한다.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오이디푸스는 부푼 발을 의미한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문을 듣고 신탁을 청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는 같은 신탁을 받는다. 그러자 자신을 길러준 폴리보스 왕을 친부로 생각하고 그를 죽일 수 없어 코린토스를 떠나 테바이로 간다. 가던 중 만난 노인을 죽이고 스팅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풀고 테바이에 입성해 어미와 결혼한다. 테바이로 가던 중 한 노인을 죽이는데, 생부 라이오스이다. 물론 오이디푸스는 전혀 모른 채, 생모와 결혼한다. 이후 자신이 장본인인 걸 알고 두 눈을 찔러 맹인이 된다. 안티고네와 테바이를 떠난다. 인생은 주어짐이다. 그는 피하지 않고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현실을 피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자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아모르 파티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인정하고 스스로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오이디푸스 부녀는 테세우스의 도움으로 아테네 변방 콜로노스에 정착한다.(소포클레스,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5) 비너스의 빗나간(?) 사랑

아프로디테(비너스)와 헤파이스토스의 결혼은 어차피 영혼이 없는 결혼이었다. 자신을 못생겼다고 조롱하는 어머니 헤라에 대한 헤파이스토스의 증오가 하늘을 찌른다. 헤파이스토스는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자신이 만든 황금 의자를 통해 복수하려고 한다. 헤파이스토스가 황금 의자를 헤라에게 선물하자, 헤라가 성큼 앉는다. 앉는 순간 사슬이 그녀를 묶어 버린다. 도저히 풀 수 없어 헤파이스토스를 불러 풀라고 하자, 아들은 아프로디테를 자신에게 주면 풀어 준다는 조건을 내건다. 이렇게 아프로디테는 사랑 없이 헤파이스토스의 아내가 된다. 헤파이스토스는 온종일 대장간에서 무엇을 만드는 일에만 몰두한다. 그러니까 그녀는 항상 사랑에 목말라 있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이 미녀에게 못 사내들이 구애한다. 낙점된 사내가 바로 아레스(마르스)이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아레스와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아이돌 아도니스에게로 향해 있다. 아레스의 방해로 아도니스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아도니스는 멧돼지로 변신한 아레스에게 물려 죽는다. 다른 버전에 의하면, 짝사랑했던 아도니스를 아프로디테에게 빼앗기자 그에 대한 복수로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에서 멧돼지를 지상에 올려보내 아도니스를 물어 죽이게 했다는 설도 있다. 아프로디테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안타까워한 제우스는 아도니스를 아네모네로 변신시켜 1년 중 4개월을 아프로디테와 함께 지내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4개월은 지하세계의 페르세포네 옆에서, 나머지 4개월은 아도니스가 원하는 곳에서 살도록 해주었다.

산드로 보티첼리(S. Botticelli, 1444~1510)의 「비너스와 마르스」는 가로로 긴 그림인데, 에로스와 프시케의 그림은 세로로 길다. 세속적인 사랑의 현장을 가로로 길게 그린 건 초월성을 차단한다. 비너스의 몸은 비례적이지 않다. 손도 길고, 발도 여성의 발이 아니다. 욕정을 품은 야수성을 드러낸 발이다. 반면 마르스의 몸은 지극히 연약하다.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충족하고 상대가 원하는 걸 전혀 해 줄 수 없는 화성(Mars)에서 온 남자이다. 그는 금성

(Venus)에서 온 여자의 욕정을 감당할 수 없다.

비너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마르스의 모습이다. 비너스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비대칭적 요소이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는 인간의 욕망을 '기관 없는 신체'라는 말로 은유한다. 인간의 신체를 기관, 즉 유기적 질서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은유이다. 욕망이 이성 에 의해 질서가 잡히도록 유기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이 신체이다. 들뢰즈는 인간을 욕망하는 기계 혹은 고깃덩어리로 규정한다. 사랑은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사랑은 항상 배고프다. 그 허기를 억누르기에는 이성은 너무 연약하다.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욕망을 매끄럽게 대칭적으로 그릴 수 없었다. 욕망을 그린 오스트리아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의 「키스」(1907-1908)나 에곤 실레(Egon Schiele, 1890~1918)의 「포옹」(1917)은 보티첼리의 그림과 연장 선상에 있다. 인간은 욕망이 발산하는 감당할 수 없는 비대칭적 힘의 노예이다. 보티첼리가 그린 것은 비너스의 욕망이다. 욕망은 선도 악도 아니다. 인간의 본질이다. 그도 클림트도 실레도 인간의 본질을 그렸다. 비너스에게 사랑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빵이다. 욕망을 채우는 빵이다. 그녀는 아직도 고프다.

6) 프시케의 정신적 사랑

아프로디테는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보지 못한다. 그런데 자신의 신전에 오던 사내들이 줄어든다. 프시케가 있는 곳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절세미인으로 소문난 프시케이다. 헤라의 질투가 제우스의 조강지처라는 권위에 도전하는 데 대한 것이라면, 아프로디테의 질투는 말 그대로 아름다움에 대한 질투이다. 아프로디테는 질투를 아데로스에게 풀어낸다. 에로스를 프시케가 가장 천박하고 비열한 남자와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 저주하라고 보낸다. 하지만 에로스는 잠들어 있는 프시케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녀가 잠결에 뒤척이는 순간 당황해서 자신의 사랑의 화살에 찔리고 마는 실수(?)를 범한다. 이 실수는 어머니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로서는 실수이지만, 그것은 의도적일지도 모른다. 처음 보는 프시케 앞에서 그는 남성성을 포기할 수 없었다.

딸의 신랑감을 기다리던 프시케의 부모가 아폴론 신전에 가 왜 내 딸의 신랑감이 나타나지 않는지 묻자, 신전의 무너는 딸을 바위산 위에 올려놓으면 신들보다 더 힘센 날개 달린 뱀이 데려갈 것이라고 황당한 말을 전한다. 어쩔 수 없이 프시케는 바위산 정상에서 자신을 데려갈 신랑을 기다린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갑자기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그녀를 가볍게 안고 꽃향기가 가득한 궁전으로 옮긴다. 그녀는 밤에만 나타나는 이 궁전의 주인인 신랑을 만나 행복한 생활을 한다. 비록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가족을 보고 싶어 신랑에게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두 언니만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할 수 없이 신랑 에로스는 프시케의 청을 들어주면서 언니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단다. 하지만 신랑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여 달라고 하라는 언니들의 재촉에 못 견뎌, 프시케 자신도 신랑의 얼굴을 보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이것이 프시케와 에로스가 사랑의 시련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된다.

프시케는 신랑이 흑시 뱀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곤히 자고 있던 신랑의 얼굴을 등불로 확인하려 한다. 그 순간 등잔의 뜨거운 기름이 등에 떨어져 잠이 깬 에로스는 프시케를 홀연히 떠나 버린다. 언니들의 꼬임에 빠져 눈에 보이지 않는 에로스를 보려고 청한 것인데, 에로스는 불신을 꼬투리 삼아 프시케를 떠난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이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았다. 정신적 사랑은 육체적 사랑과는 달리 감각적으로 볼 수 없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일 수 없다.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어머니의 욕정의 산물로 태어난 에로스는 프시케를 만나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정신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룬다.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초월해

가는 사랑이다. 프시케(psyche)가 영혼 혹은 정신이고, 영혼을 다루는 학문이 심리학(psychology)이다.

아프로디테의 질투는 끝이 없다. 아프로디테는 데메테르의 조언을 듣고, 프시케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몇 개의 과제를 준다. 첫 번째는 창고에 수북이 쌓여 있는 곡식을 정리하는 것이다. 에로스의 도움으로 무사히 처리한다. 두 번째는 황금빛 양털을 깎아 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강의 신이 도와주어 잘 처리한다. 하지만 이 둘 다 도움을 받아 한 것임을 잘 아는 아프로디테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지하세계에 있는 페르세포네에게서 아름다움이 담긴 화장품을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프시케는 상자를 연다. 아프로디테가 예상한 대로다.

더 예뻐지고 싶은 욕망에 열어서는 안 될 상자를 연다. 상자를 여는 순간, 프시케는 잠에 빠져들고 만다. 하지만 에로스는 잠들어 있는 프시케를 깨우고, 둘은 다시 재회한다. 아프로디테는 이 둘을 떼어 놓을 수 없다. 이 둘은 제우스의 도움으로 결혼하고 예쁜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볼루타스(voluptas), 즉 기쁨이다. 고난을 이겨낸 자의 기쁨이다.

프시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로스를 하늘에 가서 만나 보기까지 험난한 길을 걷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건 영혼의 몫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건 쉽다.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갈망하는 건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혼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건 매우 어렵고도 귀한 것이다. 프시케는 이걸 참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싶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을 향해 인내하고 그 고통을 참아야 한다. 사랑은 초월이다.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의 상승이다. 에로스는 프시케를 납치해 하늘로 상승한다.

윌리엄 부게로(W. Bouguereau, 1825~1905)의 <프시케의 납치>는 하늘로 초월해 간다. 세속적인 사랑의 초월이다. 에로스 and 프시케의 그림은 비율이 맞는 정상적인 남녀의 몸이다. 전체적으로 조화를 갖춘 그림이다. 어디 한 군데 욕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아니 욕정을 극복하고 정신적 사랑으로 초월한 사랑의 표현이다. 한없이 기뻐한다. 스피노자는 기쁨을 “더 작은 완전성에서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스피노자, 『에티카』, 189)으로 정의한다.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는 데서 생기는 기쁨이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 완성된 것이다. 스피노자는 “사랑은 이러저러한 욕망이 없이도 생각될 수”(같은 책, 192) 있다고 말한다.

7) 트로이 전쟁 영웅들의 사랑

(1) 아킬레우스의 찌질한 사랑- 『일리아드』 1권은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한다. 분노한 이유는 자신의 막사에서 사랑을 나누던 크리세이스를 아가멤논이 빼앗아 간 것에 대해 분노한다. 자신의 여인 크리세이스를 크리세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아폴론이 역병을 퍼지게 한다. 돌려주고 난 후 옆 막사 아킬레우스의 여인 크리세이스를 빼앗는다. 아킬레우스는 출전을 거부한다.

아마존 여전사 펜테실리아를 죽인 후 여인임을 알고 죽은 시신과 사랑에 빠진다. 아마존이란 의미는 한쪽 유방이 없다는 것이다. 활을 잘 쏘기 위해 한쪽 유방을 절제한 전사이다.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이다. 헥토르의 여동생 폴릭세나에 빠진다. 프리아모스에게 전령을 보내 폴릭세나와 결혼만 시켜준다면 폴릭세나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트로이 편에서 싸우겠다고 전한다. 일리아드에는 없는 얘기다. 아폴론 신전에서 만나 혼담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파리스는 미리 만날 장소에 나가 독화살을 아킬레우스의 발뒤꿈치에 맞춰 죽인다. 영웅 아킬레우스의 찌질한 죽음이다.

(2) 그리스판 춘향전- 트로이 전쟁에 승리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오는 데 10년이 걸린다. 고향 떠나 전쟁 10년 귀향 10년 20년을 집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여정이 고난의 연속이다. 귀향길 8년은 두 요정 키르케

와 칼립소와 산다. 키르케와 7년 칼립소와 1년이다. 오디세우스의 귀향 의지는 강하다.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멘토를 만날 날을 기다리다 결국 고향에 도착한다. 페넬로페 역시 남편이 돌아올 날을 시아버지의 수의를 찢다는 이유로 매일 베를 짜면서 기다린다. 페넬로페는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남편이 남기고 간 활을 꺼내어 구혼자 중, 이 활로 열두 개의 도끼자루 구멍을 통과하는 자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한다.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거지 변장을 하고 나타난 오디세우스가 성공하고, 무장해제를 하고 있던 구혼자들을 모두 처단한다. 20년 만에 사랑을 찾는다. 한국판 춘향전의 데자뷰다.

(3) 아가멤논의 막장드라마-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다. 아올리스 항에 바람이 잦지 않아 출전 못 하자. 딸 이피게네이아를 아르테미스 신전에 제물로 바친다. 그는 트로이에서 카산드라를 전리품으로 챙겨 온다. 그의 아내 크리타임네스트라는 그의 정부(情夫) 아이기스토스와 함께 목욕탕에서 남편을 살인한다. 7년이 지난 후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아이기스토스와 어머니를 죽인다. 이때 딸 엘렉트라도 힘을 보탠다. 근친살인의 막장드라마 집 안이다.

3. 마무리

신화 속의 다양한 사랑의 유형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다. 신과 인간에게 공통적인 점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랑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제우스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랑은 멀리한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성을 도구화한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사랑예찬론을 결론으로 인용한다. 위험 없는 사랑은 사랑에 대한 위협이다. 위험 제로의 보험을 넣듯이 사랑할 수는 없다. 위험 제로의 전쟁이 없듯이 사랑 역시 위협이 없을 수 없다. 위험을 꺼안지 않는 사랑은 이기주의적이고 쾌락의 변형일 뿐이다. 진정한 사랑은 공간과 세계와 시간이 사랑에 부과하는 장애물을 계속 매몰차게 극복하는 것이다. 사랑은 다리 절기다. 걷기 힘들다는 게 계속 걸어가게 하는 동력이다.

사랑은 창조다. 모든 사랑에는 위험이 따른다. 권태롭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는가? 전사자 제로의 전쟁이 없듯이. 문제는 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창조해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사랑은 목적 그 자체이지 결코 수단일 수는 없다. 다나에한테 비로 접근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제우스에겐 타자의 성은 쾌락 추구의 도구 이상이 아니다. 성(sexualiy)은 그 자체 인격이다. 타자의 성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사랑에 대한 칸트의 지상명령이다.

강사소개

계명대학교에서 현상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구교육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욕망으로 성찰한 조선의 공간』, 『여행, 인문학에 답다』,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만주아리랑』, 『한국불교와 서양철학』, 『현대철학』, 『진리의 현상학』, 『현상학의 이해』 등이 있고, 역서로 『탈근대적 자아를 넘어서』, 『에드문드 후설』 등이 있다.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일본의 종교

성해준(동명대학교 교수)

1. 가깝고도 먼 한반도와 일본열도

일본열도는 고대부터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有史) 이전의 빙기(氷期)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주기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던 약 1만여 년 이전의 홍적세(洪積世, Pleistocene Epoch)¹⁾에 한일 양국이 육로를 통해 왕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종·종교·문화 등에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 한반도로부터 수도농경(水稻農耕)이나 청동기 제조·천문·건축 등의 기술 문화 전수를 비롯하여 유교·불교·도교, 근세 에도시대에 들어와서는 조선 정부가 에도막부에 파견한 통신사를 통해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의 전수가 있다.

동시에 660년 백제 멸망 후, 663년의 일본 지원군의 백마강 하구에서의 패배 이후, 오랫동안 공식적인 국교단절, 고려시대 여몽 연합군의 두 차례의 일본 침략(1274년과 1281년), 왜구, 임진왜란(1592년), 한일합방(1910년)으로 인한 강제노역이나 위안부 등의 과거사 문제와 관동대지진(1923년 9월 1일)의 조선인 학살사건 등의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지칭할 때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가깝다는 말은 지리·혈연·문화적으로 가깝다는 것이며, 이를 흔히 냇물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사이라는 호의적인 의미의 일의대수(一衣帶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반면 역사적 관계로 인해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불구대천(不俱戴天)의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한일 유전적 유사성과 일본 천황가(一衣帶水)

한일 양국의 역사적 지리학적 근접성을 비롯하여 양국의 문화적 인종적 유사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예로 하버드 대학의 재래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 교수는 미국의 언론·문학상인 풀리처상(Pulitzer Prize)²⁾ 수상작이 된 저서 『총·균·쇠(Guns, Germs and Steel)』(문학사상, 2019년 131쇄, p.656)에서 아랍인과 유대인의 경우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같은 피를 나누었으면서도 오랜 기간 서로에 대한 적의(敵意)를 키워, 양국의 지난 역사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양국은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쌍둥이 형제처럼 과거 기원전의 홍적세 때 자유 왕래에 이어

1) 신생대 제4기 전반의 시대. 인류가 발생하여 진화한 시대로, 지구가 널리 빙하로 덮여 몹시 추웠다.

2) 1917년에 제정되어 미국 언론인 풀리처의 유산으로 매년 신문·잡지·문학 분야의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

그 후 한반도인들의 집단 이동 당시 일본(倭)은 100여 개의 작은 도시 국가였다. 한반도의 북방계 고구려와 신라, 남방계 가야와 백제인으로 추정되는 야마토 왕조가 일본열도 남단 큐슈에서 나라를 세운 후 중앙 무대인 야마토(大和)로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동조론(同祖論)의 구체적인 이론으로 조몬·야요이(縄文·弥生)시대의 한반도로부터의 집단 이주와 가야인, 집단거주지인 일본 사가현(佐賀県) 간자키시(神埼市)에 있는 요시노가리유적(吉野ヶ里遺跡) 등이 나타난 것처럼 일본의 초대 천황은 도래인의 리드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천황가를 2,500년 이전에 도래한 재일한국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천황가 발언의 구체적인 예로 지금 천황의 부친이자 상황(上皇)인 125대 아키히토(明仁) 천황은 2001년 일본 황실에 백제의 피가 흐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재임 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한 한국 방문의 염원은 그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였을 때, 한국인 태평양전쟁 위령비 부근을 지나면서 수행원들에게 차를 세우게 하고, 조용히 위령비 앞으로 가서 영령들을 위로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아키히토 상황의 ‘한국과의 인연’ 즉 50대 천황으로 알려진 ‘칸무천황(桓武天皇, 737-806)의 생모와 백제와의 관련’에 대한 발언은 2001년 12월 18일 아키히토 천황 생일에 즈음하여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기자로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관련한 대표 질문 중 하나의 답변이었다. 이때 그는 “칸무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武寧王, 462-523)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續日本記)』에 쓰여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다(桓武天皇の生母が百濟の武寧王の子孫であると続日本紀に記されていることに韓国とのゆかりを感じます)”라고 했다. 또 2013년 나라현에서 열렸던 국제대회에서도 『속일본기』를 인용하면서 칸무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무령왕의 아들 성명왕(성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한 사실을 밝혔다. 당시 천황 발언의 핵심은 자신의 먼 조상의 어머니가 백제왕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불교가 백제로부터 전해져 일본문화와 기술 발전에 한반도로부터 도래인들의 공로가 크고, 그것이 양국 사이의 깊은 교류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야마구치현(山口県) 출신인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교수의 저서 『기마민족국가』에서 기마민족이 한반도에서 남하해 일본으로 건너와 야마토 조정을 건설하였다는 설이다. 구체적으로는 “천황가는 그 자체가 조선으로부터 건너온 기마민족 이주자들이었다. 또 일본 고대사 연구의 대가인 우에다 마사야키(上田正昭) 교수가 1965년에 펴낸 『귀화인, 고대국가의 성립을 둘러싸고』라는 서적에 일본 왕실과 백제의 연결고리에 대한 거론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설을 기본으로 『주간신조(週刊新潮)』 신년 특대호(©JJP News)에 특종 보도된 기사로 당시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1942-) 자민당 간사장은 2001년 12월 10일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1942-) 국가주석과 면담한 후,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공개 강연회에서 천황가는 한국에서 건너왔다고 하였다. 오자와 의원은 천황가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것은 자신 스스로가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근대 이후 오랫동안 천황의 한반도 도래설은 금기 사항이었다. 또 일본 천황가와 한반도의 깊은 인연을 상상할 수 있지만, 현재 학술적 연구라 할지라도 천황릉 관련 고분의 공식적인 발굴이 금지되어있다. 그뿐만 아니라 천황릉이라고 확정하는 곳에는 옛날 한국 동해안의 무장공비 식별을 위한 것처럼 철조망 등의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일정 부분 흰 자갈을 깔아 침입한 사람의 발자국 흔적을 구별할 수 있게 하면서 접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철저한 접근 금지를 하는 이유는 만일 천황릉이 발굴되면 진실이 탈로(바레루)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을 제기하는 일본인도 있었다.

3. 한반도에서 전래된 일본 불교

불교(佛敎, Buddhism)의 한반도 전파는 고구려 소수림왕, 서기 372년 순도 스님에 의하여 처음 들어왔고, 백제는 침류왕, 서기 384년 마라난다에 의하여 전해졌으며, 신라는 법흥왕, 서기 527년 목호자 스님에 의하여 처음 불교가 들어왔다.

한반도로부터 전래된 일본의 불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중국불교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었다.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6세기 초인 538년 백제 성왕(聖王)이 불상과 불경을 전해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불교는 불(佛, 부처), 법(法, 교리와 사상), 승(僧, 교단)의 삼보 중 부처 숭배가 중심이 되고, 현세의 이익과 죽은 자(死者) 공양 위주, 전통적인 신 숭배와 일체화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불교전래 당시 일본은 백제와 친밀한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백제 성왕은 불상과 불경을 보내 불교를 받아들일 것을 권했다.

당시 일본 조정에는 새로운 종교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의 대립이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왕실과 귀족들 간에 수용되었다. 특히 스이코 천황(推古天皇)의 섭정이었던 성덕 태자(聖德太子)는 594년 삼보흥륭(三寶興隆)의 칙시를 내리고 17개조 헌법을 제정해서 불교의 국가적 승양을 촉구함으로써 일본 불교의 초석을 놓았다. 성덕 태자는 불교에 의해 씨족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불교의 보급은 또한 발달된 대륙문화의 수입을 뜻하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도 여러 경전을 연구하여 『유마경(維摩經)』·『승만경(勝鬘經)』·『법화경(法華經)』에 대한 주석서를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일본 불교의 지식층은 대부분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건너간 한국 승려들이었으며, 그들 가운데는 혜충·혜자와 같이 성덕 태자의 스승이 된 사람도 있었다. 이들 한국 승려들과 중국에 유학한 일본 승려들에 의해 7세기 일본에는 「삼론(三論)」·「성실론(成實論)」·「구사론(俱舍論)」의 연구를 주로 하는 학파들이 각각 세워졌으며 중국의 법상종도 들어와서 강력한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각 시대별 불교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84)에는 수도에 집중되었고 지배계급에 한정되어 있었다. 8~9세기에 전국으로 확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 불교가 확산 될 수 있었던 원인을 신도와 불교의 심각한 대립이 없었다는 점과 여러 신앙들을 흡수할 수 있는 불교의 힘, 신도의 카미(神)와 숭배가 불교에 조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화엄종도 수입되어 이른바 남도육종(南都六宗)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즉 율종·구사종·성실종·삼론종·법상종·화엄종으로서 주로 학생들이 경전과 교리를 연구하며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통제된 국교적 성격을 띤 불교였으며 민간포교활동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서 율종·법상종·화엄종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을 형성했으며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 특히 동대사(東大寺)를 본거지로 한 화엄종은 나라시대의 불교를 대표하다시피 했다. 동대사에 안치된 대불(大佛) 비로자나불상(毘盧遮那佛像)은 나라불교의 상징으로서 우주만물에 편재해 있는 법신불의 세계와 사사무애의 법계를 나타내고 있다.

2) 교토(京都)로 수도를 옮긴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에는 중국으로부터 천태종과 진언종이 들어와서 일본 불교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천태종은 사이초(最澄, 767-822)에 의해 수입되었으며, 대승보살계 계율을 규정하고 인간평등 무차별을 주장하였다. 히에이산(比叡山)에 자리를 잡고 대승 계단을 설치하고 나라를 위한 승려들의 훈련에 힘썼다. 사이초는 천태종뿐만 아니라 율·진언·밀교·선 등도 들여왔기 때문에 일본 천태종은 매우 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산·구의 3업을 통해 즉신성불(卽身成佛)을 목적으로 하는 진언종은 사이초와 함께 당에 갔던 구카이(空海,

774-835)에 의해 도입되어 즉신성불을 주장하며 고야산(高野山)에 자리를 잡았다. 진언종은 물론 성불을 목적으로 하나 현세 이익을 추구하는 기복적 성격이 강했으며 귀족들 사이에 매우 인기가 있었다. 천태와 진언은 모두 현세적 성격이 강한 일본의 토착신앙인 신도(神道)와 습합된 형태로 공존했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말법사상이 유행했으며, 종래의 융합적 성격을 띤 불교를 배척하고 오로지 하나의 구원의 길만을 선택해서 따르려는 전수(專修)운동이 강하게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무사들이 지배하는 카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92-1333)에 들어오면서 더욱 강화되어 새로운 종파들이 출현했으며, 일본불교의 특이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카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92-1333)에 성립된 이러한 전수 불교적 종파들을 남도육종이나 천태종과 진언종으로부터 구별하여 신불교라 부르기도 한다. 전수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전수염불이 가장 확실한 수행법이라 주장한 호넨(法然, 1132-1212)으로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정토에 왕생한다는 단순한 신앙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대중적 호응을 얻었으며 일본 정토종(淨土宗)의 원조가 되었다. 호넨의 제자들 가운데는 염불의 행(行)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는 믿음을 중시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대립이 발생한 가운데 믿음을 중시하는 호넨의 가르침을 받아 악인정기설을 주장한 신란(親鸞, 1173-1263)의 출현과 함께 정토진종(淨土眞宗)이라는 새로운 종파가 성립되었다. 신란은 신(信)의 일념이 발생하는 순간 정토왕생이 결정되며, 염불은 단지 아미타불의 은총에 대한 보은의 행위일 뿐임을 강조했다. 그는 믿음도 염불의 행(行)도 모두 아미타불의 회향(廻向)의 힘에 의한 것이지,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순수타력신앙을 강조했다. 따라서 계율의 준수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신란과 그의 제자들은 자유로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현재 정토진종은 일본불교의 최대 종단을 형성하고 있다. 카마쿠라 시대에는 또한 매우 투쟁적인 승려 니치렌(日蓮, 1222-1282)이 등장하여 니치렌종(日蓮宗)을 개창했다. 그는 『법화경』 신앙을 고취했으며 염불을 모방하여 법화경의 이름을 부르는 창제행위(南無妙法蓮華經)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대중적인 신앙을 전파했다. 소가갓카이(創價學會) 등 전후 일본에 출현한 신흥 종교들은 니치렌종 내지 법화신앙 계통에서 파생한 것들이 많다. 카마쿠라 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선불교의 종파들도 수입되었다. 에이사이(榮西, 1141-1215)는 임제종(臨濟宗), 그리고 도젠(道元, 1200-1253)은 조동종(曹洞宗)을 개창했다. 선불교와 함께 일본 중세에는 다도·서도·하이쿠(俳句, 17음절의 짧은 시) 등이 유행했으며 선은 일본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상의 카마쿠라 신불교의 지도자들은 모두 천태종에 몸담고 있던 승려들이었으나 기성 교단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일으켰던 것인데, 그들에 의해 수립된 종파들은 카마쿠라와 아시카가 시대(足利時代, 1338-1573)를 통하여 급성장했고, 오늘날에는 천태종과 진언종을 누르고 일본 불교의 대중을 이루고 있다.

4)에도 시대(江戸時代, 1603-1867)에는 그리스도교를 추방하기 위해 불교를 국교로서 보호했기 때문에 각 종파의 교단조직이 정비되고 교학도 다듬어졌으나 종교적 창의성과 역동성은 없었다. 1603년에서 1867년까지의 시기이며 도쿠가와 막부시대 탄압정책으로 불교의 포교활동이 금지되었고 사원건립이 제한되었으며 출가자의 제한이 있었다. 또 본말사의 행정체제 확립으로 막부의 명령을 본산을 통해 말사까지 하달하는 체제가 정비되어 각종파의 행정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불교종파의 행정체제, 주지의 임명권이 장악되어 승려들은 주지가 되기 위해 막부가 실시하는 시험을 치렀다. 이는 불교 교학과 각 종파의 종학으로 발전되었다.

5)메이지 시대(明治時代, 1868-1912)가 되어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국수주의가 대두하면서, 신도(神道)와 불교를 분리시키고 불교를 배격하는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불교는 국교적 위치를 상실하고 침체기에 들어갔으며, 메이지 정부

의 명에 따라 승려들의 대처(帶妻)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유럽의 근대적 불교 연구 방법이 도입되어 산스크리트·팔리어·티베트어 불전에 대한 연구와 불교사의 연구가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일본불교는 전반적으로 종파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종파의 개조(開祖)에 대한 숭배가 성하며 계율준수의 전통이 사라져 승려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사찰들도 대다수 대를 이어 운영되고 있다.

근대적 불교 연구 방법 도입으로 현재는 일본에서 연간 생산되는 불교학·인도학 관련 서적이거나 논문의 양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에서 생산되는 양보다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4. 일본 종교의 특징

일본인들에게 믿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거나 무교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신도의 습속에 따라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탄생에서부터 새해맞이, 결혼식 등의 행사는 신사(神社)를 중심으로 행해진다. 불교 또한 일본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종교이다. 장례식이나 제사 등의 의식은 불교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면 신사에 참배하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장례식은 절에서” 이것이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신앙 형태이다. 또한 일본인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축하한다.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은 타종교에 대해 아주 관용적이다. 신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특정종교에 관계없이 필요 적절하게 섬기는 것이 일본 종교문화의 특징이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카미사마(神様)와 호토케사마(佛様), 즉 신과 부처가 동시에 그것도 갈등과 위화감 없이 공존하고 있는 범신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일본의 기독교를 비롯하여 신도, 지장신앙, 수험도, 신종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독교(基督教): 기독교는 불교보다 훨씬 늦은 1549년 프란시스코 사비에르(1506-1552)라는 선교사에 의해 전래되었다. 규슈(九州)와 주고쿠(中國)지방의 다이묘(大名 :1만석 이상의 영지를 가진 지방 영주) 가운데 서양의 문물에 대한 관심이나 무역상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17세기초에는 신자수가 약 70만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자기보다 신을 존중하는 것이 두려워 1587년 선교사 추방령을 내려 신국(神國)일본에서의 사악한 종교의 포교를 금지하고 나가사키를 몰수해 버렸다. 이때부터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어 1579년에 일본 최초의 기독교 순교인 이른바 26성인의 순교가 일어났다. 또한 에도 막부도 1612년 금교령을 내려 근세 쇄국 하에서 기독교는 완전 금기시 되어 버린다. 그 후 근대에 들어 1873년 구미제국의 요구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기독교 금교를 해제하자 카톨릭, 개신교, 러시아정교의 선교사가 들어와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게 된다. 서구 문화의 중심을 이루어 온 기독교는 서구화,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일본에서 다시 포교 활동을 하게 되고,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 외, 사회사업과 교육사업도 벌여 서구문물을 일본에 전파하게 된다. 당시 서구 세력 앞에서 근대화를 통해 일본의 생존과 번영을 꾀하고자 하였던 일본은, 정신은 일본에 바탕을 두고 기술은 서양에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화혼양재(和魂洋才)의 흐름과 신불분리를 통한 신도 국교화 등으로, 사실상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일본 내에서 정착하기에는 어려웠다. 더불어 범신론적인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유일신인 기독교 교리는 쉽게 수긍되지 못하였다. 오늘날 기독교는 전세계 인류의 3대 신앙으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으나, 일본의 기독교는 전 인구의 1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신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2. 신도(神道shrine): 자연물에 대한 숭배심이 종교로 발전한 것으로, 애니미즘의 일종이다. 신도의 각개 영역에는

수많은 카미사마와 호토케사마가 존재한다. 가령 이세다이진(伊勢大神)·하치만신(八幡神)·카스가요진(春日明神) 등과 같은 무수한 신들이 존재한다. 일본사람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이들 여러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이 일본의 전통적인 자연 신앙이며, 이 신들을 모아 제사를 지내는 곳이 신사(진자, 神社)인 것이다. 신도에는 내세관도 없고 교의도 없다. 또 경전도 없고 교주도 없으며 설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자연스럽게 신사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이 근대국가로 나아가자 정부는 신도 국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불 분리령'을 내려 신도와 불교를 분리시키고 불교를 배척하였다. 1870년에는 국가신도를 국교로 정하고 각 지역별로 신사를 정리 체계화하여 그 정점에 천황을 둔 것이다. 천황의 신격화를 위해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통일시켜 갔는데, 전사한 군인들을 위해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를 짓고, 궁성 요배 등을 강요한 것도 그 유산의 하나이다. 현재에도 일본 전국 어디에나 진자가 산재하여 있다. 일본인들의 대다수는 출생·결혼식의 축하를 비롯하여 시험합격, 무사고 운전, 가업번창 등을 기원하기도 하며, 지역주민들이 신사에서 축제를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신도 그 자체에 깊은 신앙심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전통과 습속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면도 강하다.

3. 지장(地藏)신앙: 지장은 일본의 헤이안 시대부터 수행하는 승려의 모습을 하고 민중을 구제해 주는 보살을 말하나, 원래는 인도의 신이라고 한다. 중세 이후 민간신앙과 접목되면서 마을 경계나 갈림길에 지장보살이 세워지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여행객이나 어린아이를 지킨다고 하여 육아지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마을 어귀의 지장 보살님은 언제나 방글방글 웃고 계시네.” 이처럼 일본 동요에 비취진 지장보살의 이미지는 상당히 현세적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다. 빨간 턱반이를 한 지장보살은 어딘지 모르게 유머러스하며 누구라도 거리낌없이 친숙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속된 이미지다. 지장은 아이들을 매우 좋아한다고 하여 일본의 여기저기에 많이 세워져 있다.

4. 수험도(修驗道): 일본의 원시적인 산악 신앙과 밀교가 혼합된 것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초인적인 수행을 쌓아 영적 힘을 체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행을 한 사람을 야마부시(山伏)라고 하는데 지금도 기이(紀伊)반도의 쿠마노(熊野)와 동북지방의 데와산간에서 실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인들의 수행코스 또한 다양하게 준비되어있다.

5. 신흥종교: 신흥종교는 급격한 사회발전과 더불어 불안해진 민중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현세 중심적인 인간구제를 목적으로 생겨난 종교집단이다. 이들 신흥종교는 주술적이며 생활과 직결된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여 샤머니즘적이며 권위적인 경향이 강하다. 한때는 정식 종교집단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1930년대에는 정부의 탄압도 받았으나, 일본의 패전으로 국가신도 체제가 붕괴되고 종교의 자유가 인정됨으로써 다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신흥종교로는 창가학회(創價學會), 천리교, 행복의 과학, 오모토교, 오옴진리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창가학회는 니치렌정종(日蓮正宗) 중심의 신앙으로 발전하여, 1964년 종교정당인 공명당(公明黨)을 결성하여 정치에 진출하여 현재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또 오옴진리교는 아사하라쇼우코 교주를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러시아 등 해외에까지 전파되어 교세가 급성장하였으나, 1995년 오옴진리교 신자에 의한 동경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으로 지금은 범죄집단 종교로 내 몰려있다. 이들 신흥종교 집단은 불안한 현대인들의 심리를 추스르면서 강연이나 출판 등을 통하여 그 세력을 확장 유지해 가고 있다.

마무리를 대신한 일본 종교문화의 특징: 겐세리야쿠(現世利益), 야오요로즈노카미(八百萬神), 혼치스이자쿠, 키세카에
닌교론(本地垂迹, 榮化), 케토 하레(明暗), 신부츠 슈고(神佛習合). 맛스수, 스나오, 마코토(誠實)

강사소개

일본 도호쿠(東北)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명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
구원 상덕문화대학 학장이며 주요 저서로 『동아시아 명심보감 연구』, 『일본 명심보감의 전래와 수용』, 『신국일본』,
『일상 속의 인문학』, 『日本思想史-その普遍と特殊』, 『カミと人と死者』 등이 있다.